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섬기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없어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1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 귀가 닳도록 듣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기성세대는 새싹들을 제대로 자라게 하지 않는다. 적절한 햇빛, 거름, 물과 공기를 주고 키우는데 애쓰기는 커녕 어린 싹마저도 쉽사리 상혼에 희생시키곤 한다. 술, 담배, 음란 비디오, 폭력 도서, 마약, 본드, 오락물…헤아릴 수 없는 유해환경과 요인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성세대이다. 청소년을 어떻게 키울것 인가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하는 자문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부처님이 장자아들에게 설한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장자의 아들이여…

장자의 아들이 4결업(結業)을 알고 4곳에서 악행을 짓지 않으며 또 능히 6가지의 손재업(損財業)을 안다면 육방을 공양하는 것이될 것이며 선생(善生)이라 할 것이다. 4결행이란 살생, 도둑질, 음탕, 거짓말이며, 4곳은 욕심, 성냄, 두려움, 어리석음이다. 6가지 손재업은 술, 노름질, 방탕, 기악에 정신없는것, 악한 벗, 게으른 것이다. 이처럼 육방을 예경한다면 이승에서 착하고 저승에서도 착한 갚음을 얻을 것이요, 이승에서 뿌리가 되면 저승에서도 뿌리가 될 것이다.
〈선생경〉

부모는 동방 되고, 스승은 남방 되며, 아내는 서방 되고, 친족은 북방 되며, 하인은 하방 되고, 스승은 상방 되네. 모든 장자의 아들 모든 방위를 예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해 때를 놓치지 않으면 죽어서는 모두 천상에 태어나리.
〈선생경〉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이치를 따르지 말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어느 결에 나쁜 버릇이 들어 깊이 어둠속에 갇하게 되느니라.
〈중일아함경〉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말하지 말라. 잠시동안 만나본 것으로 마음과 뜻을 쉽사리 같이 하지 말라. 놋쇠나 구리그릇에 순금으로 도금한 것처럼 드러낸 말과 행동에는 꾸밈이 있어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나니 속으로는 좋지않은 생각을 품고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주며 이곳저곳 다니면서 세상을 속이느니라.
〈잡아함경〉

나쁜 벗들과 친하지말고 법답지 못한 모임에는 가지를 마라.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정법의 모임에는 항상 나가라. 스스로 악행을 쌓지 않아도 악에 물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 비난과 비웃음이 뒤를 따르나니 좋지않은 이름이 밤낮으로 퍼지리라.
〈법집요송경〉

관련기사 2면

해인골프장 반대 서명 1백만명 돌파

사찰환경보존 '국민 염원' 결집
청와대 "여론 수용 정책반영 검토"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운동이 지난 14일로 4개월만에 1백만명을 돌파했다.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1백만명 돌파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이태녕 서울대명예교수, 한명희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남주 YMCA사무국장, 황인성 한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각계대표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 이각범 정책기획수석에게 1백만명 돌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18일부터 시작한 백만인 서명운동에는 종교계·정·관계 법조계 학계 초·중·고교사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립공원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한결같은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각범수석은 "유네스코협약 권고안과 국민들의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해인사 관전 및 팔만대장경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1주년을 맞는 오는 12월9일 ICOMOS(세계문화유산기술자문회의) 관계자를 초청, 기자회견 및 정부당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서명운동이 4개월만에 1백만명을 돌파, 범국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청소년 보호육성 종교계 나섰다

유해환경 근절·범종교 문화회관 건립 등 대정부 건의

위험수위에 다다른 유해환경 근절과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 각 종교지도자들이 연대, 범종교적인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승원주 조계종 총무원장, 김옥근 천주교 서울대교구총대리 주교, 김준곤 한국대학생선교회장 등을 비롯 7개 종교지도자들은 지난 12일 이수성총리를 방문,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5개항의 대정부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서 각종 언론매체들이 청소년의 심성을 타락시키는 선정적, 폭력적 장면을 경쟁적으로 방영·출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대중매체의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을 촉구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청소년출입 퇴폐유흥업소 및 청소년에 대한 담배·주류판매업소를 강력히 규제함은 물론 근절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업소 허가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해환경감시를 위한 종교시민단체와의 연대기구' 창설을 제의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종교단체들이 '범종교 문화회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청소년의 전인교육 방안과 과외열풍 차단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종교지도자들의 움직임은 지난 10월 청소년과 종교란 주제로 개최된 '96종교지도자대회부터 가시화됐다.

한편 정부도 최근 '청소년보호법안'을 제정하고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는등 벌칙을 대폭강화키로 했다.〈김중근 기자〉

윤리회복 실천대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고봉식)는 지난 16일 남녕고등학교에서 '96 윤리회복실천청소년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윤리회복과 가치관회립을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는 동국대 송석구총장의 특별강연, 사물놀이, 사자탈춤 등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청소년들은 약물남용 가두캠페인도 실시했다.



"대구BBS 개국…깨침의 법음 울린다"

불교대구방송이 지난 11일 개국했다. 주파수 94.5㎒ 호출부호 HLDI, 출력 3K㎾로 대구 경북일대에 하루 21시간의 방송을 내보내게 됐다. 이날 개국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진각종 박해 통리원장 등을 비롯 대구 경북지역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해 불교대구방송의 개국을 축하했다. 〈대구=이은자 기자〉



이기영박사 타계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이기영박사가 지난 9일 오전11시 국제학술대회장에서 개회사를 마친 직후 별세했다. 향년 74세.

한편 영결식은 11일 오전8시에 서울삼성의료원에서 거행됐으며, 영결식 후 한국불교 연구원과 동국대에서 노제를 지낸 후 박제 화장장에서 다비됐다. 〈관련기사 6면〉

불교학 거목 이기영박사 추모 6면
장애인이 만든 불교용품 판로없다 15면
낙태 부도덕 다룬 불서 '봇물' 12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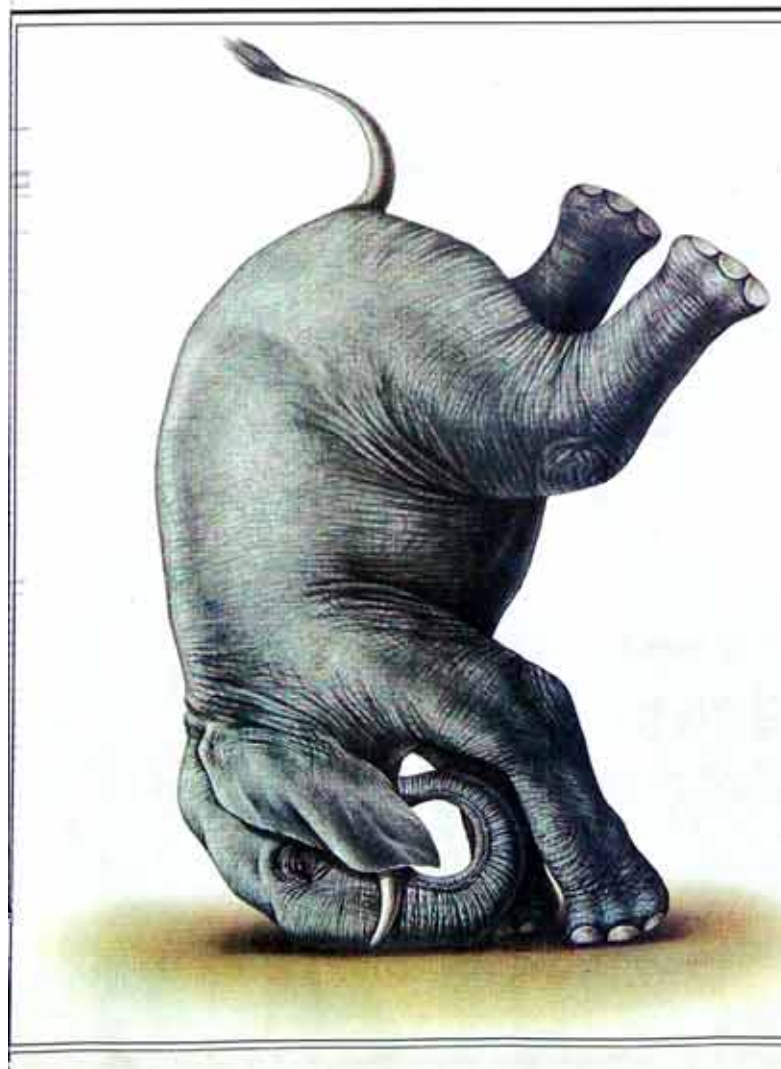
제2회 신행수기 모집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신행수기 공모는 자신의 신행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삼보에 귀의하여 불자의 길을 걸으며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며 불심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 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넓혀 갈 이 기회에 불지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선작은 본지에 게재됩니다.

△원고분량: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공모대상:불자면 누구나
△원고마감:1996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1997년 본지 신년호
△접 수: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공모 담당자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58

현대불교신문사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장품, 계전반, 몰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식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현재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사 설

사찰환경은 민족문화

사찰환경의 보존과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본말사 주지 대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린다. 25개 전국교구본사가 주관하여 본말사의 주지스님 30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환경과 민족문화수호를 단일 슬로건으로 걸고, 이렇게 종단차원에서 대규모 공식 집회를 통해 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개발독재시대에는 '권력'으로 사찰수행공간이 파괴됐고, 민주화시대에 들어와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규제완화정책으로 '돈'에 의해 민족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찰환경분쟁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갈등·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찰은 5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일부 재벌들과 정부의 개발주의 관료들의 이기심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와 해인사 등의 유수한 불교성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고속전철과 고층아파트의 건설, 골프장·스키장·리조트 등 특정계층을 위한 위락시설의 건설 등으로 수행공간과 문화환경이 황폐화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번 사찰환경수호 결의대회를 계기로 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지금까지 불교계가 제기하고 있는 사찰환경권의 보장과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한 각종 불교관련 법령에 추가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법을 새로 제정하여 쾌적한 사찰환경의 보존·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금까지의 잘못된 문화재 정책과 공원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존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사찰의 수행공간을 침해하고 삼보정재를 훼손하는 공원정책·문화재 보호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셋째, 가리워지고 버려진 옛절터와 민족문화유산을 찾아내서 복원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재정지원은 물론 인재양성과 교육홍보도 요구된다. 일제 식민지사관과 제국주의사관에 의해 우리 민족의 유산인 삼보정재가 과소평가되고, 황폐화된 것을 되살려 내는 작업이 요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함께 불교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새롭게 인식하자.

첫째, 부처님사상에 바탕을 둔 환경관과 자연관을 정립하고 전국에 있는 사찰은 이를 실천하는 환경교육·환경운동의 중심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문제·생태계의 구조와 실태 등에 관한 교육담당기관의 설립·지원·육성이 종단과 범불교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사찰의 환경실태와 피해상황 및 각종 사례를 늘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과 여론조성을 위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구성이 요망된다.

넷째, 사찰이 청정한 수행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널리 홍보하고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청정도량 수호운동을 통한 사찰환경 지키기를 일상화한다.

다섯째, 지역의 환경단체·다른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환경운동을 펼쳐나간다. 특히 국립공원지키기운동이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운동, 무공해먹거리 보급을 위한 생활협동조합운동, 녹색휴가보내기운동 등을 추진하는 범불교적 연대가 필요하다.

열린마당

신도교육 의무화

신도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포교원이 마련한 '신도교육 체계화방안'을 바탕으로 신도교육 의무화를 위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교분과위와 포교원은 신도교육은 종단의 미래상과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라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사찰에서는 신도교육 의무화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사찰의 형편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토론을 통해 신도교육 의무화의 방향을 점검한다.〈편집자 주〉

기복탈피 불자상 정립…2년내 추진



벽암 〈조계종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신도교육은 종단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다. 신도가 입문과정에서 바른 신행의 관점을 세우는 문제에서부터 교리 이해, 수행법, 종단 규범의 이해, 권리·의무 행사, 신도조직 활동, 신도 법계, 불교의 의례의식, 사찰운영 참여 등에 대한 교육방안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간 종단 차원에서 이런 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단위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안을 잘 조사하여 종단 차원의 통일된 신도교육 체계화 방안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불교와 종단의 발전은 신도 교육과 조직화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단 차원의 신도교육 방안을 세우는 데는 산업문명과 인간의 탐욕으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주체를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와 맞물려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불교정신을 바로 구현한 불교적 인간상의 정립은 한국불교의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향후 2년간 포교원, 그리고 제방의 식견있는 분들과 더불어 이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 노보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신도의 재교육, 통일된 교재 및 의식의 보급 등 여러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지면을 빌어 제방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지역·사찰 신행형태 차이 극복 '관건'



주경 〈수덕사 포교국장〉

신도교육 의무화계획이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 계획은 불교가 현대사회의 기능화에 대응해 자기 존립의 기반을 마련함과 타종교의 조직적 역량에 대한 상대적 열악감을 극복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포교원의 신도교육 의무화의 기본골자를 보면 각 사찰단위로 기초, 기본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정식불자로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급, 고급단계를 마련하여 포교사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신도교육을 의무화하는 일이 종단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도에서 추진된다고 하여도 고려하고 준비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현대의 사찰은 수행, 기도·불공, 포교, 사회봉사의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찰의 전통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기도 하고 도심과 시골 등 지역의 차이에 의해서도 신행의 형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말사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대다수 스님들의 현재의 의식은 신도교육 의무화의 개념을 바로 수용하여 제대로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이라 했다. 개혁의 바람으로 조급하게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이고 꾸준한 진행으로 신도교육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조계종 신도교육 체계화방안〉

구분 \ 단계	기 초	기 본	중 급	고 급	재교육
교육과정	사찰 안내 법회 안내 사찰 예법…	사찰 안내 불교관 부처님 생애 삼귀의 사홍서원 육바라밀 한국불교사 불교문화 이해 종단·종지·종풍 종단규범 신도권리·의무·수련·봉사 활동 성지순례…	신행공동체 이해 기본경전 이해 수행법·실수 불교 문화 불교 사회역사관 방편이론 (교육·환경·시민·소비자·여성·통일·지방자치론…) 증단법규 이해 포교론 지도력 향상 수련·봉사활동 성지순례…	수행 주요경전 이해 불교사 불교 문화 증단법·편제… 사회역사관 응용 방편이론 지도·조직론 포교론(설법) 세미나 수련·봉사 행사 참여 성지순례…	경전읽기 모임 환경모임 봉사모임…
수계	삼귀의계	오계	보살계	포교사	
주관	사찰	사찰	사찰	교구본사 이상	
의무	의무화	의무화	자율	자율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 시안 마련

기초·기본·중급·고급·재교육등 체계화

포교원은 지난 10월 포교사 연수교육 자료집을 통해 신도교육체계화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도교육은 기초 기본 중급 고급 재교육 등 5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 기본교육은 각 사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포교원은 "신도교육체계화방안은 논의를 위한 시안이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현장 불광법회

18년전부터 초심자 정기교육 실시
입문·바라밀과정 거쳐야 오계받아

불광법회(주지 지철)는 18년전부터 신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정식불자로 입문하는 수계를 받을 수 있다.

성인입문자의 경우 반드시 '입문과정'과 '바라밀과정'으로 이름붙여진 불교기초학습을 거쳐야 한다. 기초과정은 모두 매주 두차례 강의가 실시되며 1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는 사찰예절과 기초교리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배운다. 교육과는 별도로 법회에 4회 이상 동참하여야 한다.

기초과정을 마치면 바라밀과정으로 이어진다. 60시간 3개월의 과정이며, 정기법회에 10회 이상 동참하여야 한다. 금강경과 반야심경 천수경 등 경전공부를 하면서 바라밀신앙을 배우고 익힌다.

기초과정을 마치면 삼귀의계, 바라밀과정을 마치면 5계를 받을 수 있다. 수계에 앞서 기초·바라밀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자세를 점검하는 수계교육을 실시한다.

고급과정은 명법사과정으로 지원자에 한한다. 6개월 동안 원각경과 금강경 법화 정토3부경 등 경전을 교재로 삼는다. 명법사과정은 기초와 바라밀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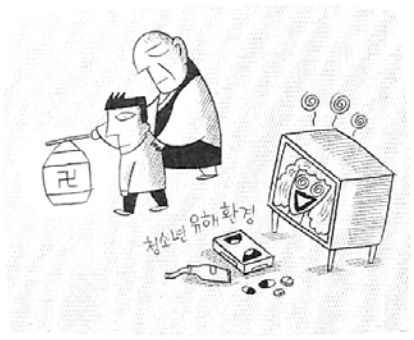
세 과정의 강사는 사중의 스님들이 담당하지만,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상담이론 등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들을 초빙해 강의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불광법회의 신도교육은 회주인 광덕스님에 의해 정착되었으며, 18년전부터 실시돼오고 있다.

불광법회 이중하사무장은 "교육과정이 초심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를 확실히 알아야 신심도 그만큼 증장된다는 광덕스님의 당부에 따라 입문자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만평

박구원



밝은 곳으로…

목어

어른에게 물드는 청소년

수능시험이 있던 날(11월13일) 오후8시 무렵이다. 용산에서 노량진쪽으로 향하는 한강대교 위의 자동차들은 감속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에 앉아서 브니 앞에 가고있던 승용차 운전석에서 손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담배재를 떨었다. 잠시후 '휙' 담배꽁초가 다리위로 떨어졌다. 무의식중에 번호판으로 눈이 갔다.

'서울X 프421X'

"길가에 나뒹구는게 담배꽁초인데 뭐 그까짓 일로 차량번호까지 외우고 야단인가" 수선스럽다고 생각할 수도있다.

바로 그점이 문제다. 하찮은 일 같지만 사소한 시민정신 결여에서 질서부재, 도덕성 부재, 청소년문제 등이 싹튼다면 지난친 비약일까.

생각없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어른의 모습에서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것인가.

미래의 주인 청소년들이 병들면 나라의 내일이 어둡다. 그런데도 우리의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늦었지만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음란비디오·담배·술 등을 팔거나 18세미만 청소년을 술집등 유해업소에 고용할 경우 징역·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종교계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위해 나섰다. 불교등 7개 종교지도자들은 12일 이수성총리를 방문, 5개항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청소년유해환경의 주범은 누구인가.

돈에 눈이 멀고 쾌락에 중독된 어른들 속에서 꿈나무들이 병들고 시들어 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퇴폐업소 등을 강력 규제하고 선정적인 광고·드라마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종교는 유해환경 개선과 더불어 어른들 교화에 더 힘써야 겠다. 청소년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나쁜친구를 가까이 하면 어느 결에 물이 들어 길이 어둠속에 갇히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환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임을 일깨우는 〈증일아함경〉의 말씀이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미리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머리 앞일을 생각하여 해야 할 바를 포기치 말라. 이같은 마음으로 나날이 닦아 의무대해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법구경〉

협찬 수안사 주지 세민 TEL.(02)587-4677



법정ㅅ님

제2회
불국정토실현과 불교중흥을 위한
불교발전 대강연회
(장학금 수여식)

무료입장

선택하는
삶!!

■ 일 시 : 불기2540(1996)년 11월 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시민회관대강당
■ 문의처 : (051)466-7174(부산불교실업인회 사무소)

●주최: 부산불교실업인회
●후원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MBC부산문화방송,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교계언론사, 교계신행단체

"포교공간이 스포츠센터로 돌변"

봉은사 문화회관 공사중단 안팎

지역포교와 불교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중인 서울 봉은사 문화회관이 대기업의 영리를 위한 고급 스포츠센타로 설계변경되어 건립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일 조계종 중앙종회산하 봉은사문화회관 대책특별위원회(우원장 영담)가 중앙종회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

봉은사특위는 5개월간의 조사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사 시공업체인 (주)대우가 사업의 계약정신과 사업취지를 훼손하여 종단과 봉은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승인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특위가 지적한 사항은 대우측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변경과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 여기에 봉은사 소임자와 관계자들의 관리책임 소홀이 문제제기됐다.

봉은사문화회관 사업은 1982년 총무원이 추진키로 한 사하촌철거와 미륵불봉안등 도량을 정비하는 봉은도시근린공원사업의 일환으로 91년 사업권이 총무원에서 봉은사로 넘어오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봉은사는 (주)풍림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종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약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로 (주)대우와 손을 잡았다.

먼저 대우측에 제기되는 의혹은 공사비 과다 책정. 94년 봉은사는 사하촌정리와 신행공간 마련이라는 사업목적으로 대우와 총사업비 225억, 운영수익금 47억5천만원, 그리고 10년간에 걸쳐 운영권을 대우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종단승인을 받아 약정 체결을 했다. 그러나 95년 공사가 시작되면서 골프연습장을 실외로 변경하고 주차장 용도로 지하 2개층을 더 파내는등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위는 이로인해 공사비가 4백5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물량산출에 있어서도 편차가 심하게 드러나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특위는 조사결과 대우측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측은 계약서에 '회원권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사전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봉우레포츠 사무실을 운영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운영과 계획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우측에 제기되는 문제는 기업특유의 이윤추구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대우측은 상류층이 주류를 이루는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문화회관을 고급스포츠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 실내 골프연습장을 확장해 실외로 설계변경하는등 시설의 고급화로 선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우측 공사관계자들은 "모든 공사는 사찰측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고, 설계변경은 사찰측과 합의했으며 증액된 비용에 대해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대우측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감독과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봉은사 전현직 소임자들도 종헌종법을 위배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봉은사특위의 보고에 따라 중앙종회는 △문화회관 사업승인취소요구 △문화회관 관련자 의법조치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업무를 총무원에 이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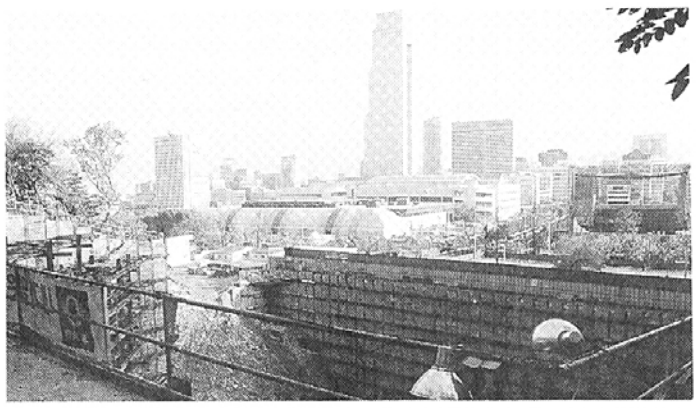
또한 시공업체인 (주)대우에 대해서도 △계약서 정신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 △굴토,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다청구한 공사비에 대해 대우가 책임질 것을 결의하고 특위를 해체했다.

현재 봉은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지하5층까지 굴토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봉은사 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대우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그동안 사업진행상 발생한 기성액이 70여억원에 이르고, 굴토현장을 안전문제상 오랜기간 방치하기 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 종회가 결의한 사업승인취소까지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봉은문화회관건립은 지역포교를 위한 문화공간확보라는 취지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사항 재검토가 불가피하게되어 사업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개발투자사업 전담부서 설립 △대형사업의 공개입찰 등을 제안했다.

이준엽 기자



◇서울 봉은사가 건립중인 봉은문화회관이 이미 굴토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비과다 증액, 설계변경등의 의혹이 일어 조계종 중앙종회가 사업승인 취소를 결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시공기업 이윤집착 골프장등 설계 변경

건설비 과다책정·분양임대 계약도 위반

대책특위 사업취소·관련자 의법조치 결의

직장·직능 포함 하부조직 결성

조계종 중앙신도회 추진 실무단 활동 2개월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을 위한 교구신도회 구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각급신도회구성 추진실무단(단장 혜창, 총무원 총무부장)은 11월 중에 불국사 등 화사 수덕사 등 3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올해안에 8~9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하면 이미 결성되어 있는 월정사 직지사 마곡사를 합하면 절반이 넘는 교구본사에 신도회가 구성된다.

추진실무단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부처님오신날 전까지는 중앙신도회를 창립할 수 있다"며 "종단의 행정력과 지도력을 활용해 계속적인 홍보작업을 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와관련 12월중에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와 함께 홍보팜플렛을 제작, 배포해 적극적인 신도회 구성작업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포교원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12월 7, 8일)와 전국사찰 신도회장단 연수(12. 14, 15)를 잇따라 열어 신도회 구성을 독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교구신도회는 실질적인 신도조직은 아니어도 임원 중심의 신도단체는 있었다. 이같은 교구신도회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 실무추진단의 주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에 쫓겨 머리수 채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 중앙신도회는 중앙기구를 먼저 발족하고 각 사찰 및 교구신도회, 지역 및 전국규모의 신도단체를 아우른다는 방향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영입이 여의치 않자 추진력을 잃었다.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발기인대회 이후 지지부진한 준비작업을 벌여와 비난을 모면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방향을 선회, 하부단위부터의 조직작업에 착수했다.

교구신도회 연내 12곳 발족

내년초 창립 '청신호'

사찰과 유기적 연대 '과제'

추진실무단은 교구신도회 구성을 진행하면서 각 지역 및 전국단위 신도단체도 중앙신도회에 합류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작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도단체는 물론 대학생불교연합 대한불교청년회 전국신도회 등 전국단위의 신도단체도 포함된다. 단위 신도단체는 인근 사찰신도회에 소속되며, 지역단위 신도단체는 교구신도회, 전국조직의 신도단체는 중앙신도회에 소속된다. 전국단위 신도단체의 임원은 중앙신도회 대의원이 됨으로써 교구신도회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

그러나 사찰과 무관한 현재의 신도단체들이 사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금과 별다른 변화없는 개별적 독자적 단체로서의 행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명실공히 1천만 불교신도들을 아우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각 사찰 및 교구신도회가 활성화될 경우 신도법에 명시된 '종단의 법령에 따라 재적사찰과 종단의 유지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를 가짐에 따라 사찰 운영에 큰 변화도 예상된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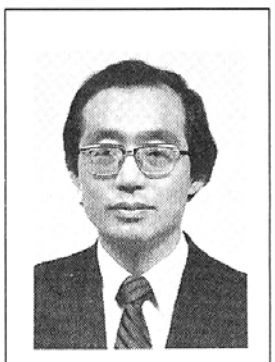
시 론

경주에서 날아온 비보

경주로부터 날아온 비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다른 문화재도 아닌 바로 우리민족의 자랑인 석굴암에 균열이 생겨서 도괴직전 단계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2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정식 등록이 되어 국민 모두가 흐뭇하게 생각하는 이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충격의 도가 더한 것 같다.

석굴암 균열 '위험 수준'

한국 국민이라면 또한 한국을 찾은 외국인까지도 석굴암을 찾아서 경주 토함산을 올라갔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총 길이가 14.8m나 되는 석굴은 돌을짜서 돔을 만들고 있는데 본존인 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주위의 벽에 39구의 보살상, 나한상, 역사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존은 국내 최대 석굴 불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원숙한 조형기법은 삼국시대 신라 조각물 중 백미로서 거의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주변 제 상에서도 보이고 있어 실로 한국 불교조각의 대표격임에 틀림없다.



임 효 재
〈서울대 교수·문화재위원〉

그런데 본존불과 연화대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가부좌를 튼 본존불 양쪽 정강이 사이에 부채꼴로 펼쳐진 가사 자락 가운데 본존불 다리와 맞닿은 곳에 길이 33㎝, 폭 1.5㎜ 크기의 균열이 생긴 것이다. 구한말 석굴암 앞면이 붕괴되면서 가사 자락의 일부가 파손되어 이를 일제시대인 1910년대와 그후 1962년 문화재 관리국이 보수를 실시하면서 시멘트와 돌가루 등을 혼합하여 원형대로 복원하였는데 현재 균열이 생긴 곳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복원된 가사 자락이 본존불과 밀착되면서 본존불 종아리 부분의 석재에도 미세한 균열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직접 조사한 경희대 김희철교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부동 침하 현상이 진행 중이며 한 마디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하였다.

국보 중의 국보로 여겨온 석굴암의 보존이 이런 상태이고 보니 다른 문화재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국민들은 우려하게된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것 중의 하나가 문화재 보수를 계기로 그 원형이 변형을 가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보존 상태가 손을 대기 전 상태보다 더 악화된 경우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1962년 석굴암 보수 때 습기와 온도 조절을 위하여 그 오른쪽에 설치한 기계실에서 가동 중인 공기건조기가 내뿜는 소음이나 진동이 오히려 석실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슷한 예로 공주의 무녕왕릉도 이런 기계 설치 후 오히려 그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빠져있으니 실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문화재는 한 민족의 걸어온 발자취를 담고있고 그 우월성을 알려주는 역사적 증거물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잘 보존하고 계승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 각자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보가 285개, 보물도 1227개나 되며 그 밖에도 수많은 문화재들이 방방곡곡에 있다. 현재의 문화재관리국 같은 하나의 국 수준에서는 이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억지일 수도 있다. 일본처럼 이것을 문화청으로 승격시켜 전체적으로 통괄하게 하는 정도의 조치는 시급히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한다.

365일 관리보호 절실

또한 로마문화재센터처럼 각 방면에 걸쳐 고도의 문화재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설굴암 같은 문화재의 경우, 이를 365일 전담하는 기술진이 상주하여 시시각각의 현상을 파악하여 영구적인 보존책을 심도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자체도 문화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영국이 1972년 문화재 보호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크게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정부 차원의 보존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재의 중요성을 재 인식시킴으로써 석굴암 같은 문화재 보존에 위험 신호가 또다시 없도록 해야 하겠다.

생활 속의 불교 (98)

방하착! 호통 속에 자유의 열쇠가 있으니.

엄양스님이 조주선사께 법을 물었다.

엄양 :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때엔 어떠합니까?"

조주 : "방하착(放下着)하라."

엄양 :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 놓습니까?"

조주 : "그러면 지고 가거라."

엄양 : 「……」

조주선사는 무엇을 내려 놓으라고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고 있다. 사람에 얽매이고 일에 얽매이고 형상에, 물건에 얽매여 있다. 어찌보면 단 한 순간도 대상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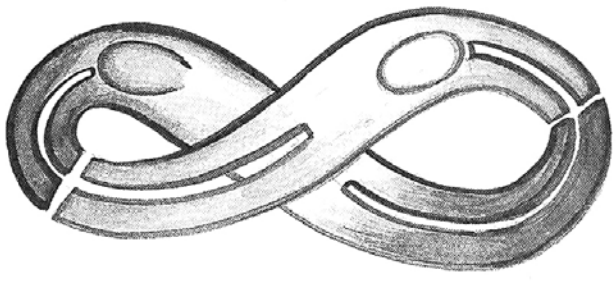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나려하기보다 더욱 더 옥죄어 지기를 원한다.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이 얽히지기를 원한다. 많이 얽히면 얽힐수록 그걸 성공이라고도 말한다. 사랑에 성공했고 일에 성공했고 재물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것이 실은 대상에 더욱 강하게 지배 당하기 시작한 것인데도 그것을 싫다하기보다 애타게 원한다.

누구에게나 그만의 특성, 즉 개성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다. 개성이 강하다거나 개성이 있다는 말은 대체로 괜찮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개성이 강하다는 말을 뒤짚어 보면 그 또한 얽매임에 불과하다. 남다른 그 무엇에 대해 특징적으로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아실현이란 이름아래 그런 저런 얽매임을 선호하며 살고 있다.

조주선사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대상에 집착하는 행동, 그 무엇에 얽매인 마음을 놓고 쉬라고 한 것이다. 심지어는 엄양의 '한 물건도 가지지 않았다.'는 생각까지도 내려 놓으라 했다.

왜 놓으라고 했는가. 얽매임은 결코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상(無常)한 것에 대한 집착이 참일수 있겠는가. 항상하는 것, 한결같은 것이라야 비로서 참일 수 있다. 변화하는 것은 변화일뿐 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無常을 常으로 본다. 常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한다. 곧 사라지고 말 것을 영원한 줄 알고 좇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조주의 밝은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일이었겠는가. 방하착! 호통을 칠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란 사실 조금 오래가는 착각일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눈꺼풀에 무엇이 씌어서 잘못 보고 있음에 불과하다. 無常을 常으로 보는한 지식은 無知요 착각이다. 무상을 무상으로 보는 조주의 지식만이 참지식이다. 그러니 무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우리들의 방황은 끝나지 않는다. 이 얽매임도 풀리지 않는다.

'내려놓으라'는 조주의 호통은 우리에게 무지의 장막을 찢고 빛을 받아들이라는 경책이요, 얽히고 설킨 넝쿨을 가르고 새 길을 내라는 주문인 것이다. 조주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자유인의 삶을 창조해가는 열쇠를 넘겨주고 있는것이다.

내려 놓음은 무엇인가. 행동의 열매를 따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성공과 실패를 나의 몫으로 삼지 않는것, 자아의식을 내동댕이 치는 것 - 마치 져 연잎이 물에 젖지 않듯이 마음으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행동의 결과를 자의식의 몫이 아니라 오히려 내 참 성품의 몫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오로지 행동 그자체가 되는 것, 모든 꾸밈을 버리고 참 성품의 빛에 일체를 내 맡기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의 진수를 맛보는 길은 방하착! 그 호통 속에 있다.

협찬 : 홍 윤 표

법회 안내

수안사(02)587-4677

월초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보름조상천도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및 인등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석불사(02)712-1765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10시
천일불교학생회 매주 일 오후2시
천일불교청년회 매주 일 오후2시
석불회(장년회)
매월 1·3주 일 오전10시

선운사(02)993-3065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방생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일 낮12시

금강정사(02)893-270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첫째주 수 오전10시30분

우리절(0347)63-4674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약수사(051)555-4332

인등기도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8일(음) 오전10시30분

영주암(051)754-2210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육바라밀법회 6일(음) 오전10시
연등참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대인정사(0334)675-7707

정기법회 매월 금요일 오전7시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사경기도 18~24일(음) 오전10시
반야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공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보현사(0391)42-9437

알반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청평사(0361)54-1092

신도법회 1·15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삼운사(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월 셋째주 일 오전11시
매주 토 오후5시
정기법회 매월 24일 오전10시30분
신도법회 매주 토 오후8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마음 활짝열어야 진정한 기도"

법정스님 지난 12일 길상회 모임서 강연



법정스님이 지난 12일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길상회 모임에 참석, '기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길상회는 프랑스 파리 길상사 후원모임이다.

■ 강연 요지

무엇엔가 의지하려는 마음이 기도의 싹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몸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망상과 졸음을 쫓기 위한 고성염불의 공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염원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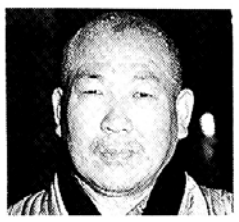
홀로 기도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 속에 차오르는 충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영험있다는 특정사찰을 찾는 것도 상(相)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흰구름 거치면 어디나 청산이라 했지 않습니까. 해인사 법보전 주련에는 이런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眞覺道場 何處 現今生死卽時' 즉, 원각도량이 어느 곳이 곳인가. 지금 생사가 있는 바로 이 자리라는 말입니다.

기도란 꼭 무슨 소원을 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개체의 의지가 전체로 이어집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향 한 자루 사룰 동안이라도 몰입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배우려 사찰에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도량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성운 기자



군·교도소·양로원 찾아 자비행

사회봉사공로 법무장관상 받는 남 강 스님

"부처님께 귀의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뿐입니다."

오는 12월 10일 사법연수원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남강스님(정읍 법인사 회주)은 재소자교화 군포교 고아원 양로원위문 법인장학금수여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6.25당시 폭격으로 몸한쪽이 불편한 스님은 일생을 불법홍포와 불우이웃돕기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정읍시내에 법인사를 창건해 사찰에 들어오는 모든 정재를 기초운영경비만 제하고 일체를 사회에 환원해 왔다. 스님은 1985년부터 매년 17명의 불우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전주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지체장애자 정읍지부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스님은 또한 불교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겨울 불교학교 개설, 군법당건립에도 수회동참해 지난 9일에는 고창군 자룡중대에 10여평의 간이법당을 건립해 주기도 했다. 스님은 "이번 상은 더욱 사회봉사에 애쓰라는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더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게시판

모집 사회복지사=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복지관 직원을 구한다. (032)325-2161

취업대비 국비훈련=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주부 및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대비 단기훈련과정을 마련한다. 수강료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액 지원. (02)365-3677

불교학교 수강생=마하연 부평포교원(원장 종연스님) 금강불교학교는 오는 21일부터 97년 3월16일까지 초발심자를 위한 제6기 불교학교를 열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일시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30분. (032)523-9911

자원봉사자=공창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레크리에이션부문 건강강연 풍물 사회체육 음악부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이다. 비전문가라도 가능. (051)361-2063



동국대 경주캠퍼스 유치원·영산관 기공

동국대(총장 송석구) 경주캠퍼스는 지난 12일 불교유치원 및 영산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불교유치원은 연면적 4백50평에 지상3층 규모로 불교아동학과 실습실 등을 갖춘 현대식시설로, 영산관은 연면적 1천3백여평에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97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녹원, 도업스님, 송석구 총장, 황명수 총동문회장, 이원식 경주시장 등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교차로

불교TV주식 1억원 청약





월하 조계종종정(통도사 방장·사진 위) 청하 조계종 전계대화상(통도사 부방장·사진 아래) 월파 통도사 주지는 지난 13일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의 은사 구하스님 30주기 연고재를 지낸후 불교TV 주식을 각각 1억원씩 청약했다.

해인골프장 현장 답사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0일 해인골프장건설 예정부지(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를 방문하고, "세계적 성보인 팔만대장경과 법보종찰 해인총림이 있는 국립공원 가야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



현근 조계사 주지는 지난 14일 덕왕전에서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남북문제' 토론회 참석

이지범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총무부장은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남북문제 어떻게 풀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통일정보교류모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조계종 종회 사무처장 피선



자승 연주암주지는 지난 13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제11대 종회 후반기 사무처장에 선출됐다.

수원 FM방송 사장 맡아



정인섭 前 불교방송사장은 천지산업이 출자하여 최근 설립허가를 받은 수원 FM방송 사장직을 맡아 개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日 불교교육학회서 논문 발표



박선영동국대교수는 지난 16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일본불교교육학회 주최 제5회 학술대회에 참석, '초·중등학교와 불교적 종교성 교육' 논문을 발표하고, 18일 귀국했다.

'노인문제' 연구 발표회 개최



윤 용 숙 (사)여성문제연구회장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문제 실태조사 연구발표회 및 〈한국문학에 나타나 노인의식〉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96청소년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스님)는 지난 10일 한국자유총연맹 대강당에서 '96청소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채근 대전광역시 청소년과장, 김영준 대전광역시 교육청 중등장학사, 남용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등을 비롯 대전시내 중·고등학생 6백여명이 참석했다.



운제스님 원효硏 개원 및 출판기념회

운제스님 불교선집출판기념 및 원효연구원 개원 법회가 지난 9일 출판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총무원장 혜초, 조계종포교원장 성타, 법륜종총무원장 혜우, 불전국역연구원장 혜남스님과 한국평생교육기구 이외윤이사장, 불일회 조달공회장, 동국대 오형근, 건국대 박관섭·이준교수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회 '남을 위해 한끼 굶기운동'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지난 9일 조계사에서 '이웃을 위한 사신공양-남을 위해 한끼 굶기운동'을 전개했다.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사신공양에서는 사신공양이 주는 의미와 불자의 역할에 대한 본각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의 강의와 수혜자인사, 촛불의식 등이 봉행됐다.



봉은사, 아셈건물신축반대 침묵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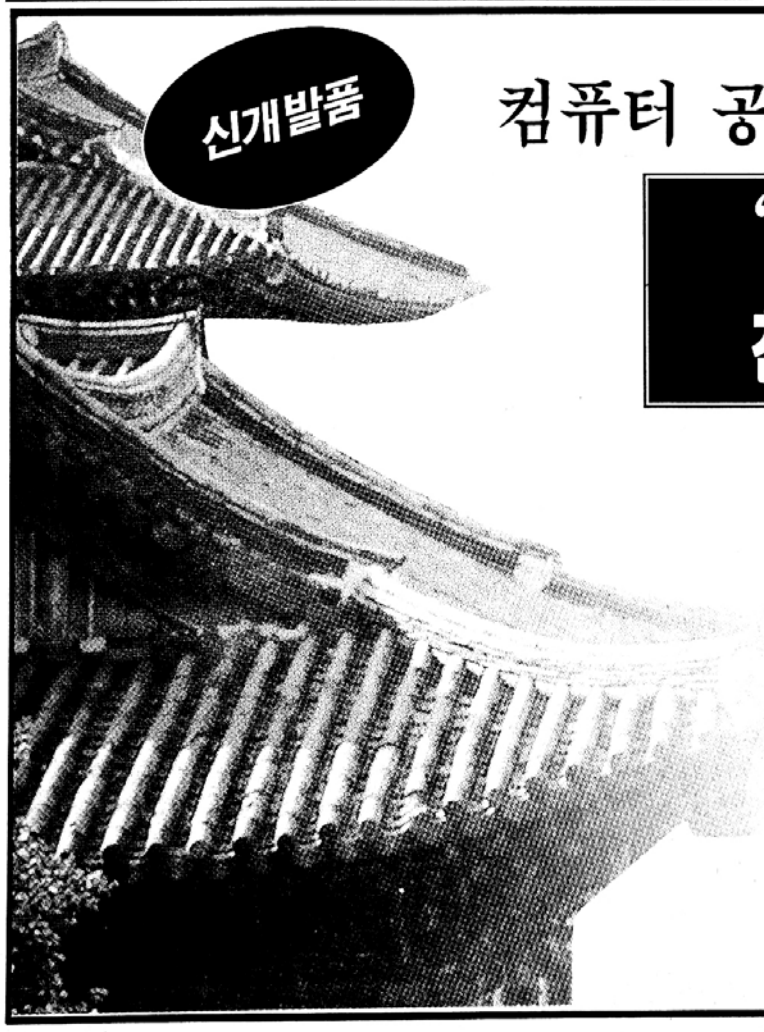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 11일 아셈(아시아 유럽정상회의)유치와 관련, 신도 1천여명이 침묵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건물허가는 봉은사와 무역협회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무역협회앞까지 침묵시위를 갖고 천년고찰 봉은사를 훼손하는 아셈건물신축중단을 요구했다.



동산반야회 창립 14주년 기념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창립 14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9일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동산반야회는 뇌사인정 법제화반대, 세계 기아난민돕기, 날마다 아미타불 염불 등 '동산 7대 운동'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신개발품

컴퓨터 공학에 따른 정밀제조

"아름다운 전통에 격조높은 색상
천년의 생명을 가람동기와가 함께 합니다"

가람銅기와

가람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불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30장씩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리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 가람의 변형을 막을수 있습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적동색에서 갈색→ 암갈색 →흙갈색→ 녹청색으로 변하여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주게 됩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 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가람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 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 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는 전부분 공정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 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720-5121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02)720-5121

대표 이주영 합장

'내가 분다' 마저 잊어야죠

산문밖의 禪

대금정악 명인 **김응서** 씨



35년간 오직 대금부는 일만…
수천번 연습 그리고 좌절
소리가 익고 썩어 마침내
대나무처럼 땅과 하늘을 잇는다

"너는 대금을 불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악보를 잘 보고 음정을 잘 맞추려는 생각하기에 바빠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대금을 불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노는 내 모습을 본다."

기가 한참 후에 이해가 되더군요. 나도 어느 순간부터 대금을 불며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더란 말입니다. 남들은 믿지 않아요. 그걸 체험하지 않고는 당연히 못믿죠.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연주회때도 무대까지 간 것 그리고 청중들에게 인사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내가 준비실로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연주를 잘 마치고 나온 것이냐고 옆사람에게 물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잘 마치고 왔다는 대답을 듣는데 기억이 없거든요. 이 나이에 긴장해서 그런 것도 아닐테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도(道)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경지가 있음을 넌지시 암시 하시는걸 나는 이해 못했던 것이고 지금은 내가 더러 그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무아(無我) 또는 몰아(沒我)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나는 산과 강을 보고 거기에 가서 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경은 물론이고 내가 연주한다는 생각과 기억자체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대금부는 일을 두고 도의 경지를 얘기하면 건방지겠지만(스승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나를 잃어 버리는 순간을 체험하는 것은 대금만을 불어 온 지난 시간으로인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부는 일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고 악기와의 싸움이고 하늘소리를 발현하려는 의지와의 싸움이므로 이 일도 분명한 수행이라 믿습니다."

김씨는 김성진선생을 만나는 순간부터 대금정악의 길을 운명처럼 받아 들였다. 그러니까 61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를 입학하면서 부터다. 6년과정 가운데 3학년부터 전공악기를 배우는데 그때 김성진선생의 권유로 대금정악을 택했고 그 선택을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스승의 곁을 떠난적도 없다. 스승의 세심한 가르침을 받으며 오직 연습에 모든 시간을 바쳤다. '이왕직아악부 이후 연습 많이 하기로는 김응서가 제일이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김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악에 맞춰 다스리는데서 바른 음악의 시작을 삼고 있다. 음악은 정신의 완성이다. 선조들이 '예악(禮樂)'이란 말을 즐겨 쓴 것도 음악은 감각적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정신 세계의 넉넉함으로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김씨의 '활인(活人)의 음악'에 대한 고집은 국보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절주(節奏)는 그의 생활이다. 그는 음악과 생활을 하나로 연주한다. 고요속의 움직임으로 장단고저강약(長短高低强弱)을 다스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악기를 이기기에 힘들고 다음에는 선율을 이기기에 힘든다. 그 둘을 이겨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참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것이 대금의 길이다. 그 길의 끝에서 인간이 하늘의 소리를 내어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을 때 참다운 음악을 이룬다. 수천번의 연습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용기로 익고 썩어 마침내 곧은 대나무처럼 땅과 하늘을 잇는 소리를 얻은 사람이 김응서씨다. 그러나 그는 득음(得音)을 자랑하지 않는다. 스스로 득음을 희롱하는 자리를 사양하는 것은 득음이란 망상마저 깨버리기 위함이다.

지난 2월 스승의 타계이후 상심한 그에게 최근 정부가 인간문화재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스승의 대금을 물려 받은 것처럼 우리의 바른 음악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의 황종(黃鐘 국악의 12율려중 기본음으로 삼는 음)은 우리 음악의 오늘이고 내일이기 때문이다.

악기·선율 집착 벗어나 무아경 찾는 소리여행
음악은 정신의 완성… '장단고저' 다스리는 정진

30여년전 스승과 나눈 짧은 대화를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절감한다는 대금정악 명인 김응서(50. 중요무형문화재20호 대금정악기능보유자)씨. 여느 외길인생이 그렇듯 김씨도 대금을 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35년간 대금 부는 일 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도 정악대금(正樂大琴)만을 불었다. 초심자때 이름 높은 명인 한분이 만들어 준 산조 대금을 꺾어버리며 정악만을 자신의 길로 삼았던 것이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왔다.

'악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과 만나 자연에서 완성된다(樂也者出於天而還於人 成於自然).' 〈악학궤범〉 서문의 시작이다. 인간의 입김과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대나무 악기가 내는 소리.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이지 결코 인간의 것도 대나무의 것도 아니어야 참다운 음악이라는 이 선인들의 높은 정신이 김씨의 길을 밀어주는 힘이었다. 그는 대금을 부는 일이 도를 닦는 일과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때 '선생님이 벌써 노망이 드셨나' 라는 의아함으로 흘려 버렸던 얘

글=임연태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독신생활을 해야 깨닫는지요

문 천지는 음양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독신을 계율로 삼고 있는데 독신생활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지요?

〈인형순 · 경기 시흥시 정왕동〉

답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 길에 들어 설때는 먹는 일까지, 자기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도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무슨 혼자 산다 둘이 산다, 여자다 남자다 하는 문제가 안중에 없게 되지요.

공부길에 사무칠 때는 그런 생각 할 사이도 없습니다. 실은 그 시기가 지나면 그때 가서는 '아하 이런걸… 이런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고 껄껄 웃게 되지요. 예를들어 통달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 여자고 남자고가 어디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무엇이라해도 좋지요. 둘이서 도반이 되어도 좋은데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보고 듣는 대로 껍질만보고 이러쿵저러쿵 생각할테니까 나 편하다고 아무렇게나 추신할 수 없는 도리가 있지요.

처음엔 나를 알기위해서 공부했는데 그 다음엔 너와 내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나투기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조화를 알고자 공부하는 것이지요. 또 누구나 본래 갖춰져 있고 알 권리가 있기에 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만약 사람들이 다 독신으로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은것 같은데 우주만물의 음양조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조화의 근본이치를 아는게 급선무라는 말입니다.

천백억화신이 나툰다는 뜻은

문 ①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는 표현의 참의미는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곳곳에 화신의 몸을 나투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마음의 힘으로 교화함을 말씀하시는지요?

② 수행을 많이한 사람도 퇴보하여 악도에 떨어지는지요? 일단 악도에 떨어지면 그 수행력은 다 소멸되는지요?

③ 애타게 기슴 설레이는 아득한 그리움의 정체는 무엇인지요?

〈익명의 불자〉

답 ①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중생모습으로 몸을 나투십니다.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천백억 세계에 여러 색신을 나타내시어 보살·성문·연각들을 교화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생이 보는 바에 따라 부처님의 나투심이 각각 다르므로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께서는 몸으로 나투는 것을 상상하시는 모양인데 부처를 부처의 형상으로 보면 이미 부처가 아닙니다. 〈금강경〉에 여래를 색신으로 보느냐? 32상 80종호로 보느냐?는 문답이 나옵니다만 이름이나 모양의 부처가 부처가 아닙니다. 설사 만명이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해도 한 부처요 부처가 천백억으로 나투었다해도 한 부처입니다.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신다함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 일체 중생으로 화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돼지를 건지려하면 돼지 속으로 들어가 돼지가 되어야 하고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일체 중생으로 나투고 계신 것이지요. 부처를 개별적인 부처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나투는 것을 육신으로 나툰다고 고정되게 생각하시는 것은 가르침의 핵심을 잘못아는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은 빛보다 빨라서 지 우주가 한 동네쯤인데 마음으로야 무엇인들 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맛을 보기 바랍니다.

② 수행에는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떤 수행을 말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바르게 수행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형식이나 겉모습으로 제법 수행을 믿어지는 경우를 말하는지가 분명치 않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행주좌와가 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다 참선수행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늘 자기를 바로 비춰보고 자기의 근본 성품자리를 믿어서 거기에 놓고 관하는 삶은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한 차원 한 차원 진화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자유인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이 아닌가요?

자기를 돌아보며 묵묵히 대장부의 발걸음을 내딛는 수행인에게 무엇인들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불법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떨까 하는 식으로 자꾸 사량분별하려들면 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수행인이라면 닥치는대로, 무엇이 다가오든 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란 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동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았던 것이 상황에 따라 솔솔 풀려나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리움이 어렵다 하시는데 그게 다 업식의 놀음이니 나온 자리에 되놓고 가도록 하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금강경독송회** 엮음

1부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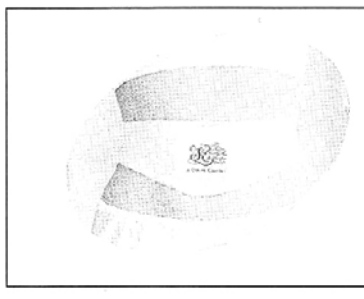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값 7,500원

요한이고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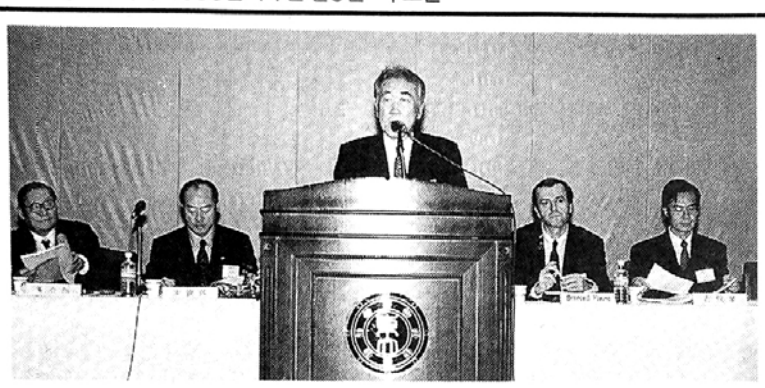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지난 9일 열린 '종교와 국가'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이기영박사의 마지막 모습. 이박사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마친후 쓰러져 7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故 불연(不然) 이기영박사의 영결식이 지난 11일 가족·지인·후학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의료원에서 거행됐다.

故 이기영박사 평생 원효와 살다간 큰 별

不然 이기영교수 떠나던 날

정토구현 역설 세미나장서 운명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쟁터의 죽음은 오히려 영광이다. 학자로서의 최후를 세미나장에서 맞은 불연(不然)선생님은 선사로서는 좌탈입망이랄 수 있다. 너무도 아쉬운 생의 종착역이었지만 그다운 작별의 몸짓이다.

평소 입버릇처럼 당신의 몸이 사대(四大)로 되돌아가거든 경주남산에 뿌려 달라고 하셨다. 이기영 선생님은 학자로서뿐 아니라 구도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사셨다. 이시대의 보살이었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에 '미친' 사람이었고 신라불교에 미쳤고, 크디어 원효스님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국제세미나의 주제는 '종교와 국가'였다. 그 분은 종교의 기여, 특히 불교적 입장의 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종교가 어차피 인간의 풍요한 삶을 위해 기여한다면, 오히려 그 종교가 자신의 영역넓히기에만 한눈을 팔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일심(一心)의 삶, 정토의 구현이라는 불교적 이상을 최고의 모델로 제시한다.

그 확신에 찬 음성과 부처님처럼 원만한 상호를 이제 다시 뵐 수 없게 되었다.

자비의 표현. 그는 풍운의 삶을 살았다. 일제의 강점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학구의 길을 걸어야 했다. 영웅은 언제나 시대의 질시를 받는 법인지도 모른다. 방황하던 그의 삶이 평온을 되찾은 것은 부처님과의 만남으로부터였다. 역사선생을 팽개치고 프랑스 유학에 올랐지만 불교공부를 결심한 것은 기이한 인연이다. 금세기 최고의 불교문헌학자 라모뜨 교수에게 사사한지 6년만에 철학박사가 된다. 그러나 금의환향 직후 동국대학에서 아픔을 겪었다. 가톨릭 후원으로 유학을 갔던 그 종교전력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다.

만년에 그는 당시의 '사건'을 자신의 만용과 부덕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실력이 있다는 자만심의 과보였다고 껄껄 웃어제끼곤 했다.

그분을 곁에서 모신지 올해로 꼭 30년. 나는 그 학문적 정성과 기개에 늘 주눅든 채 살아왔다. 최근까지도 그는 늘 필자가 '공부에 등한하다'고 나무라셨다. 꾸짖을 스승을 가졌다는 나의 행복은 이제 무참히 구겨져 버렸다. 평소에는 너그럽기 한량없는 분이었지만 '공부하는 일'에는 너무나 엄격하셨다. 평생 단 한번도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대장경의 페이지 마다에는 온통 형광펜과 메모로 가득하였다.

그는 불교학 연구의 새 지평을 개척하였다. 문헌학 위주의 불교학에 역사적 방법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해박한 산스크리트어, 프랑스어, 일본어, 영어, 한문실력은 사상 정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비교종교라는 관점에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학문적 개안의 경지가 약여하다.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한다. 그는 색신(色身)을 버렸지만, 그윽한 법(法)의 내음으로 언제나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대장경 손 떼본적 없어
동서넘나든 원효학 거봉

정 병 조
〈동국대교수·사회교육문화원장〉

弔詩

해 하늘위 삼천대천 세계에서
빛나는 광명인가
달빛 은하계 멀리멀리
맑게하는 교요함인가.
어찌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빛과 맑음을 거두어가는
숨소리 막히어 모두를
멈추게 하고 숨 막히게
하는 소식인가.
不然선생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그렇지 않다고
보이시는 法華讐喩입니까.
그 으뜸 元曉의
새벽앞에 향불 사루며
예경하던 둔준한
체구에 왜 숨을 죽이시고
있습니까.
일심귀원의 참뜻을
한 번 보이시느라고
짐짓 한 번 앉으면서 심통을
전하는 기별입니까
국가 그것 무엇이며
종교 모든 울타리 넘어서야
된다고 오늘 오전 9시에
큰 소리로
할 하시면서 학술열반하신
不然 스승이시여
대안열반하소서.

1996. 11. 9 목정배 분향

연보

·1922 황해도 봉산군 만천면 유정리 출생
·경성제대 법문학부 사학과(동양사학) 전공
·1954~1960 벨기에 루벵대 사학 및 철학 전공, 철학박사 취득
·1960~1987 동국대, 영남대, 국민대 교수
·1974 한국불교연구원 창립(원효학당, 구도회 설립)
·1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3부장
·198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장
·1984~1996 '서울특별시 문화상'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인촌상 학술부문' '하성학술상' 수상
·1985~1996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불교방송 이사, 재단법인 보덕학회 이사, 한국불교재가회의 공동대표 역임

저서 및 논문

〈원효사상연구1〉〈유마힐 소설경〉〈한국불교연구〉 등 40여권의 저서와 '화엄일승법계도의 근본정신' '원효에 의한 반야심경 신해석' 등 연구논문 70여편.

생애와 사상

10년전 이기영 박사는 동국대학교를 정년퇴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죽음이란 시험답안지에 이름석자 써놓고 교실을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면 답이 틀렸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효학의 대가이자 대승보살운동의 선각자였던 故 이기영 박사(74). 한마디로 그는 원효와 한평생을 함께 하며, 원효사상을 이 땅 위에 실천하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은 큰 별로 평가된다.

이박사는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과 '화쟁(和諍)'의 원효사상이 인간이 가야 할 목표와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늘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요익중생은 삶의 방법임을 설해왔다. 나보다는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신념은 그가 원효로부터 받아 든 평생의 화두였다.

이 신념은 이박사에게 원효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교리 분석을 넘어 원효사상의 참된 의미를 밝히기 위한 각고의 학문적 연구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인도경전을 원전으로 해독하고, 우주통합의 원리인 원효의 화쟁사상과 성(聖) 속(俗)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단호히 거부하며 원효학연구에 몰두, 마침내 지난 94년 〈원효사상연구〉를 내놓음으로써 한국불교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 좌우명

저서 '원효사상연구' 불교학 새 지평
대승보살운동 이끈 '이 시대 보살'

그러나 그는 학문연구만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았다. 74년 한국불교연구원을 창립하고 원효학당과 구도회를 설립, 지금까지 3백50여명의 원효학도를 양성해 냈고 수많은 대중을 바른 불자로 인도했다. 또 30여년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교사불자회 재가회의를 창립시켜 불교대중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한 이박사는 보살도 실천의 주창자로서 일반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박사는 다원화된 현대적 이념과 원효사상의 일치점을 탐구하면서 '실천적인 학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했다.

벨기에 루벵대학 유학 당시 가톨릭신자였던 이박사는 심오한 불교철학에 매료돼 마침내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는 묵묵히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열정으로 세월을 채웠다.

한명우 기자

사찰부동산 등 불교의 재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무수한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재(淨財)이다. 따라서 이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불교를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당면과제중 하나다.

11월 20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 위원회(위원장 영담)와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류승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불교 사원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는 사원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생산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사원경제 활성화방안' 세미나 중계

"사찰토지 생산성 높여야"

김응철교수 종책수립·관리인력 확보 시급
노부호교수 재가 운영참여·경영평가 도입
류승무교수 주말농장 등 상업 자본화 필요



◇노부호



◇류승무



◇김웅철

현재 사찰토지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단의 보유토지에 대한 종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전산원장)는 '불교 사찰부동산의 실태와 활용방안 -조계종단의 토지문제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종단보유의 토지를 관리, 감독, 기획, 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데다 정부의 토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문인력 확보 및 토지현황에 대한 자료 축적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찰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사암을 신축하거나 복지, 수익, 문화, 체육, 장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가치창출은 '생산성'의 확대와 연관된다. 물론 이윤을 남기자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획득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구제활동 등을 전개해 살기좋은 사회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노부호교수(서강대 경영학)는 논문 '사원경제의 합리화 경향과 생산불교의 필요성'에서 불교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생산불교의 방향은 자율(종단과 사찰부의 반불교정책과 각종 불교재산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토지자본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이 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내적 요인으로는 한국불교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들었다. 불교계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토지자본의 생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극복방안으로는 △사찰토지의 상업자본으로의 전환(종합수련원, 주말농장, 신용협동조합 등)과 △명확한 불교재산 파악과 이를 교구본사나 종단차원에서의 관리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불교사상의 재해석 등을 제시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쉽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포시즌 콘도에서 불자님 가정에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지리산+도고 2차분양!



카드한장으로 국내외 16개의 최상의 콘도가 생깁니다.

■ 창립 10주년 특별혜택
- 무이자·무보증 계약 즉시 카드 발급 및 사용
- 성수기 제외 사용일수외 추가 권리보장
- 무공해 주말 농장 이용
- 일시불시 10% 할인
- 신용카드 가능(18개월 할부가)

■ 회원가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 제주 2개 사용
·포시즌 호 텔
·서귀포 리조텔

■ 정상분양가 (30일 기준)

17평형	1,100만원	23평형	1,500만원

■ 특별분양가(15일 기준- 도고 2차)

평형	특별분양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17	645만원	165만원	400,000×12개월
25	945만원	205만원	617,000×12개월

· 상기 금액은 회원제 기준임

■ 온라인 구좌안내 예금주: (주)가원레저

농협	366-17-001354	국민	839-25-0009-357
제일	436-20-074674	외환	211-22-01205-8

· 조기마감 될 수 있사오니 확인후 입금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포시즌콘도미니엄

(株)伽元住宅
(株)伽元레저産業
(주)와이·케이 물산

회원사업부 : (02) 3452-8998(代)
직 통:(02) 562-3225 법명 도인

"화엄의 바다에서 리얼리티 찾아"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연재를 마치고 좌담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1월 17일자(61호)부터 32회동안 연재해 온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를 마감하며 그간 연재된 내용을 정리하고 불교와 보르헤스문학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이 좌담에는 조달공씨(성대명예교수), 김호성씨(동대강사), 편역자 김홍근씨(외대강사)가 참여했다. 〈편집자 주〉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를 마치고 그의 불교와 문학을 재조명하는 좌담에 김홍근·김호성·조달공씨(좌로부터)가 참석했다.

환상적 사실주의 '색즉시공'의 문학적 표현
무아사상 심취 포스트모더니즘에 큰 영향
설화통해 원형 가까운 부처님 찾으려 노력

김홍근: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를 연재하며 그의 불교에 대한 천착(穿鑿)에 가장 감명 받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편역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첫 독자로서의 입장에서 그의 글을 읽고 정리하며 저는 두가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동양인도 유럽인도 아닌 아르헨티나, 중남미인이 불교라는 종교와 그 사상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교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문인가 그것도 환상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불교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조달공: 이번 연재를 보며 저도 보르헤스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영향은 프랑스 문학에도 지대하게 끼쳐져서 까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를 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가로서 어떻게 불교의 정신을 그토록 정확히 받아 들이고 자기화 시켰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호성: 동양권 종교 사상의 큰 기둥인 불교가 근대 이후 서구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야 잘 알려진 얘기지만 보르헤스란 인물을 알면서 저도 상당히 놀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불교강의〉는 우리나라에서도 넓게 읽혀져야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소설을 몇편 읽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의상스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홍근: 그의 〈불교강의〉나 강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에 꼭 각인된 것, 다시말해 자신이 충분히 소화한 것만을 남에게 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천착하며 불교를 자기화 시켰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부처님의 생애와 전생담과 같은 불전(佛傳)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호성: 저는 굳이 '전설상의 붓다'와 '역사상의 붓다'를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부처님의 전기는 합리성과 역사성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관심가졌던 설화적 요소들은 이미 우리들도 다 듣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붓다'와 '역사적인 붓다'를 구분하는 것은 근래의 일이고 불교전통 자체는 그것이 어우러져서 서술되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조달공: 불교를 역사적으로 풀이하려는 것은 학자들의 입장이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불교적 특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전생담'과 같은 이야기는 믿음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 것이지 역사나 전설이나 신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본래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홍근: 바로 그런 점에 보르헤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2백여년간 서구를 지배해 온 이성주의에 대한 회의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설화적 요소를 통해 상상력을 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설화를 통해 보다 원형에 가까운 붓다의 모습을 보려했습니다. 이는 곧 그의 문학관으로 직결됩니다. 그는 늘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리얼리티냐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서 그는 "이성적 판단에 의지한 사실은 환영(겉모습)이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한다"라는 답을 얻은 것이고 거기서 그의 환상적 사실주의 문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달공: 리얼리티란 불교에서 보면 현상계의 반쪽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진리의 본체는 현상의 리얼리티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리얼리티는 인식계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진리의 얼굴 즉, 진리의 본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호성: 아까 의상스님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은 〈화엄일승법계도기〉를 쓰셨고 또 〈법성게〉를 쓰셨는데 시의 형식을 빌었습니다. 후에 누가 "왜 시에 의지해서 법계의 진리를 나타내려 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허(虛)에 즉하여 실(實)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답합니다. 허는 환상 허구이고 실은 사실인데 허와 실이 둘이 아니란 것이지요. 보르헤스도 그걸 잘 파악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허구를 통한 리얼리티, 환상적 사실주의는 화엄의 이치와도 통해 있는 것입니다. 화엄의 인드라망이나 일중일체 다즉일의 진리를 문학에 충분히 용해시켰다는데 그의 위대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홍근: 그의 환상적 사실주의란 '색즉시공'의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전기 중 깨달음의 장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알레프〉와 같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달공: 그는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정신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영향도 영향이지만 〈알레프〉와 같은 작품을 통해 서구의 시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하고 불교적인 시간관과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가 불교를 체득하여 문학에 용해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홍근: 보르헤스는 윤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윤회의 주체를 '업'으로 파악하고 업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업과 관련한 견해를 '현생의 나의 행동 가운데 전생의 나의 행동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업이란 쉬지 않고 짜여지는 인연의 그물이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서구사상에 미로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는 업의 그물을 체득함으로 공간적 미로가 아닌 '시간적 미로'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서구인에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으리라고 자신도 생각했던 이 업보사상을 그는 〈갈라지는 오솔길의 정원〉을 통해 표현 하고자 했습니다.

김호성: 보르헤스는 윤회를 매우 길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윤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윤회의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아무래도 윤회의 주체는 업이라는 쪽이 많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보르헤스도 이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가 얻은 미로라는 아이디어는 의상의 법계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법계도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업이고 최종에는 정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양의 미로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핵심에 신(神)을 두고 그 신을 보면 죽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법계도는 그 핵심에 붓다 즉, 성불을 둡니다.

조달공: 윤회란 그것을 따지기도 이전의 필연입니다. 사물이나 시간이란 것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보는 시각을 의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서구 기독교의 경우 시간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지만 불교는 지옥이나 극락 마저도 윤회의 한 과정(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제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의 의지를 내세운다면 불교는 인연의 흐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자기이고 모든 인연도 결국은 자기의 것이어서 성불도 자기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확대된 개념이 중생이고 우주이고 법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홍근: 그렇기 때문에 궁극으로 확대된 자아(自我), 그러니까 '무아(無我)'에 대한 관심이 보르헤스를 지배하기도 했던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는 이 테마에 심취해 연극에서의 배우와 관객의 의미를 설정했습니다. 배우로서의 나가 있지만 그를 바라보는 관객으로서의 나도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신선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호성: 무아라는 것은 서구사상에서 하나의 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와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우파니샤드 등의 인도사상에 영향 받은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이 정설을 부정하는데, 실체 존재 이성 로고스에의 구조적 부정은 요즘 얘기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보르헤스의 관심이 무아설에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조달공: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나 니체를 서양에서는 리힐리스트(허무주의자)로 몰아 세우기도 했지만 그들은 허무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허무주의와 전혀 다르니까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플라톤에서 시작 된다고 봅니다. 2차대전이 끝나며 벽에 막힌 현실을 탈피하려는 노력에서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실체와 현상에서만 찾지 않고 보다 깊은 곳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많은 실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사회의 사상적 근저인 '진리는 고정불변'이란 관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었습니다. 무상을 몰랐던 것이지요. 플라톤의 원소이론만 해도 무상의 진리를 내포한 것인데 그 자체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호성: 얼마전에 원로학자 김지견 박사님은 '포스트모더니즘은 의상(義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상은 '법계도기'를 쓰고도 자신의 이름을 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쓰면 이미 집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스님은 '무유주(無有主)'라 했습니다. 보르헤스도 무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깊었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근: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는 연기론이라는 측면에서 고정불변의 텍스트는 없다는 개념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보르헤스도 도서관과 책의 얘기에서 이에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르헤스는 선불교에 대한 관심도 지대해서 '보르헤스와 나'라는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김호성: 선불교에 대해 그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극동지역의 선불교'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전법륜 속의 근본진리를 꿰뚫는 선불교의 모습에 그는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홍근: 보르헤스의 문학이 폭넓게 소개되는 것과 함께 그의 불교적 천착 그리고 문학에 영향 끼친 불교의 요체들을 점검해 보니 역시 보르헤스는 아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줄 큰 인물임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불교학자나 문인 또는 일반 불자와 독자들 모두가 문학가로서의 보르헤스와 불교를 폭넓게 소화한 사상가로서의 보르헤스를 균형있게 만나는 기회가 많길 바랍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참석자



조달공 〈성균관대 명예교수〉

"보르헤스는 불교정신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자기화시켰습니다"



김호성 〈동국대 강사〉

"'시간적 미로'는 의상의 법계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홍근 〈편역자·외국어대 강사〉

"'업은 쉬지않고 짜여지는 인연의 그물' 그는 업사상에 매료됐죠"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거금도, 진리의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보조국사께서 창건하신 천년 고찰입니다.
스님의 정혜쌍수의 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수련회 일정 "3박 4일"(목~일)

차수	기 간	연령	대상	모집인원
1	96년 12월 5일 ~ 12월 8일	20~55세	일반인	30명
2	96년 12월12일 ~ 12월15일	〃	〃	〃
3	96년 12월19일 ~ 12월22일	〃	〃	〃
4	96년 12월26일 ~ 12월29일	〃	〃	〃
5	97년 1월 2일 ~ 1월 5일	〃	〃	〃
6	97년 1월 9일 ~ 1월12일	〃	〃	〃
7	97년 1월16일 ~ 1월19일	〃	〃	〃
8	97년 1월23일 ~ 1월26일	〃	〃	〃
9	97년 1월30일 ~ 2월 2일	〃	〃	〃

※ 각자 신청서를 만들어 이름, 주소, 직업, 전화번호, 종교, 수련법회 유·무, 원하는 차수 참가소견을 적어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 아 래 —

- 수련내용 : 참선·선체조·수심결강의, 산행
- 수련지도 : 일선스님
- 회 비 : 5만원
- 교통편 및 위치 : 서울 - 광주 - 녹동 / 서울 - 여수 - 녹동 / 부산 - 녹동 ── 금 진 (배로 20분거리)

● 장 소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74 송광암
● 연락처 : 0666)843-8488 FAX)842-7307

奉 제8대 총인 추대식 祝

대한불교진각종 제8대 총인 각해 대종사의 추대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불기 2540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대한불교진각종 총인원 대강당

證 明 : 印 剛
顧 問 : 大安華 道 欣 慧 一 / 一 靜 智 光 至悔心 / 福善定
指導委員 : 寶印定 妙 法 永安行 / 一成和 慧眼定 修 淨 / 一 覺 德 庵 慶 慧 / 碧 庵
推戴委員長 : 樂 慧
副委員長 : 省 超 眞 堂
委 員 : 于 勝 玄 峰 碩 奉 / 慧 圓 覺 庵 慶 慧 / 敬 淨 眞 成 侔 明 / 一乘行 慈悲花 善心月 / 智心月 崔在弘 朴熙擇 / 卞鐘午 林炳基 李相潤 / 朴確順 權寧玉 李鐘元
執行委員長 : 鎭 山
副委員長 : 慶 樂 素 庵 大 慶
總 務 : 鎭 山 曉 云 圓 庵
儀 典 : 惠 淨 觀 證 曉 原
涉 外 : 惠 慧 德 一 道 成
財 務 : 惠 印 和 州 隨 慧
委 員 : 孝 庵 悔 淨 性 正 / 守 性 圓 直 惠 明 / 一 釋 知 玄 曉 峰 / 義 玄 智 正 妙心淨 / 慧心持 月定心 心月智 / 心軒淨 六道心 德一心 / 本有淸 持心淨 自光正

大韓佛教眞覺宗 總印推戴式 奉行委員會
委員長 統理院長 樂 慧 合掌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㉑

有等胡思亂想 東尋西找叫做疑情
유등호사란상 동심서과 규주의정
那知念想妄想念多
나지유상망상유다
等於欲升反墜 不可不知
등어욕승반추 불가부지
初心人所發的疑念很粗 忽斷忽續
초심인소발적의념한조 홀단홀속
忽熟忽生 算不得疑情 僅可叫做想
홀숙홀생 산부득의정 근가규주상

약초실각조 변합입경혼상태

그럭저럭 망상을 타파한다 할텐데 앞서 말한 때에 이르면 참다운 의정이 드러나매 비로소 진정한 공부의 시기라 할 것이다.

이 때에 하나의 커다란 관문이 있으니 흔히 기로에서 머무적 거리기 쉽다.

첫째, 이때는 심신이 아주 청정하고 가뿐한 듯 하여 만약 조금이라도 밝게 비춰보기를 놓친다면 바로 가벼운 혼침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若有箇明眼人在旁 一眼便會看出他
약유개명안인재방 일안변회간출타
正在這箇境界 一香板打下
정재저개경계 일향판타하
馬上滿天雲霧散
마상만천운무산
很多會因此悟道的
한다회인차오도적
②這時淸淸淨淨 空空洞洞
저시청청정정 공공통통
若疑情沒有了 便是無記 坐枯木岩
약의정몰유료 변시무기 좌고목암

어떤 이는 또 어지러운 망상으로써 동에서 찾고 서에서 뒤지는 것을 의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생각이 많을 수록 망상이 더욱 더 많아진다는 것을 어찌 알랴.

이는 위로 올라가려 하면서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바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초심자가 일으키는 의념은 흔히들 거칠어서 문득 끊어진 듯했다가 문득 이어지고 문득 익은 듯했다가 문득 설고 하니 의정이라고 할 만한게 못된다. 겨우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날뛰던 마음 조롱에 갇힌듯 하면 참선 공부 푹 익으면 의심 안해도 의념생겨"

漸漸狂心收籠了 念頭也有點把得住了
점점광심수롱료 념두야유점파득주료
才叫做參 再漸漸功夫純熟 不疑而自疑
재규주참 재점점공부순숙 불의이자의
也不覺得坐在甚麼處所 也不知道有身
야불각득좌재심마처소 야부지도유신
心世界
심세계
單單疑念現前 不間不斷 這才叫做疑情
단단의념현전 불간부단 저재규주의정
實際說起來 初時那算得用功
실제설기래 초시나산득용공

점차로 날뛰던 마음이 수습되어 조롱에 갇힌듯 하면서 염두에 무언가 잡히는 게 있으면 비로소 참선이라 부를 수 있다.

다시 점점 공부가 푹 익어지면 의심치 않아도 절로 의념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오로지 의념만이 드러나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래야 비로소 의정이라 부를 수 있게된다.

실제로 설명을 한다면 처음에야 어찌 공부를 한다고 쳐 주겠는가.

僅僅是打妄想 到這時眞疑現前
근근시타망상 도저시진의현전
才是眞正用功的時候
재시진정용공적시후
這時候是一箇大關隘 很容易跑入岐路
저시후시일개대관애 한용이포입기로
①這時候淸淸淨淨無限輕安
저시후청청정정무한경안
若稍失覺照 便陷入輕昏狀態

만약에 명안종사가 곁에 있다면 한눈에 바로 알아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 경계를 바로 한방 내려치자 마자 온 하늘의 구름과 안개가 걷힌다고 한다.

흔히들 이때문에 오도한 줄 알게 된다.

둘째, 이 때는 아주 청정하고 심신이 텅비어 툭 트인듯하니 만약 의정이 사라지고 없다면 이는 곧 무기라서 고목이나 바위가 앉아 있는 것과 같다.

或叫冷水泡石頭
혹규냉수포석두
到這時就要提 提卽覺照
도저시취요제 제즉각조
覺卽不迷 卽是慧 照卽不亂 卽是定
각즉불미 즉시혜 조즉불란 즉시정
單單的的這一念 湛然寂照
단단적적저일념 잠연적조
如如不動 靈靈不昧 了了常知
여여부동 령령불매 료료상지
如冷火抽烟 一線綿延不斷
여냉화추연 일선면연부단

혹자는 이를 찬물이 돌머리에 부딪혀 거품 이는 격이라 한다.

이럴때에 이르면 다시 화두를 들어야 하는데 든다는 것은 각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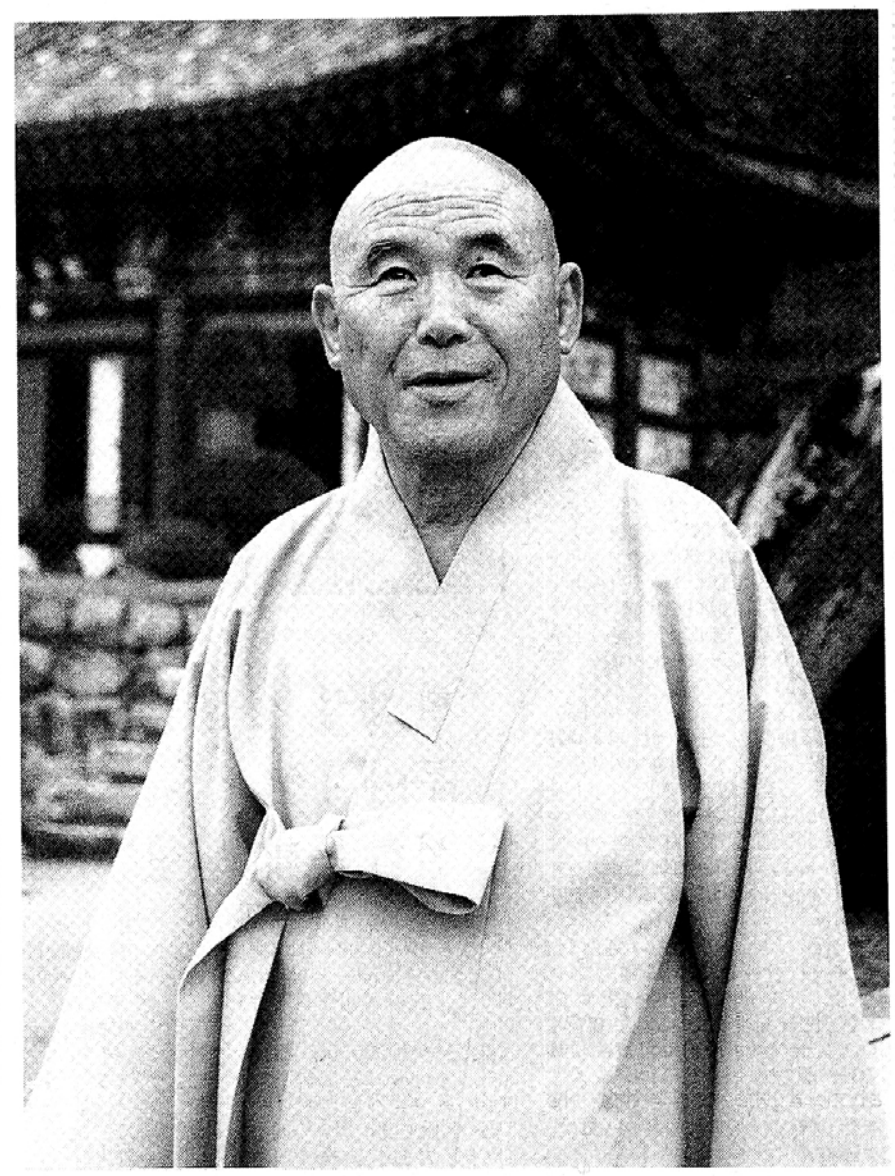
(각은 곧 미혹하지 않음으니 혜이고 조는 어지럽지 않음이니 곧 정이다)

(이렇게 해서) 오로지 한 생각 또렷하여 흔들림없이 조용히 비추면

여여 부동하며 신령하여 어둡지 않고 또렷또렷이 지각하며 마치 약한 불의 연기가 한줄기로 피어올라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이 된다. **龍眼**

★ 지상법석

"마음 맑은 사람은"



탄성스님 〈공림사 주지〉

약력
- 1928년 충남 신도안 生
- 50년 갑사서 금오스님 은사로 득도
- 금오스님 모시고 전국선원 다니며 수행
- 법주사 주지및 조계종 종회의원(72년) 조계종 수습대책위원장(80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94년)등 역임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塵)이라.

삼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천년을 두고 보배가 되지만 일백년을 탐낸 물건은 하루 아침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출가하면 행자시절에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 의미 깊은 가르침인데 그 뜻을 삶에 녹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된 사람은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글귀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 소개했습니다. 신도안에 살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어느 절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처사들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런 것이었어요.

"신원사에 갔더니 젊은 스님이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다' 라는 말을 해 주더군. 그 절에서 이런 글을 공부한다는 것이야."

"그래? 그런데 그 의미는 뭐라던가?"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 두고 보배고 백년 물건 탐내는 건 하루 아침 티끌이라고 풀이해 주더구먼."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 두고 보배요
백년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스님들이라 참 좋은 공부를 하시는구먼..."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왠지 좋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골똘히 생각했지요. 그 말이 참 좋아 오래 가슴에 새겨져 있었고 그 말을 생각하다가 '나도 절에 가서 글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타계하셔서 어머님과 형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출가를 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해가 가고 스물한살이된 해 가을에 순천 선암사에 계시는 스님 한분께서(우리 집과 내왕이 있던 분) 갑사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갑사로 놀러 가는 걸 허락 받았습니다. 갑사를 다녀와서 더욱 출가를 하고 싶어 어머니께 "갑사 스님들이 사자암에 와서 올 삼동(三冬)을 나면서 글이나 배우랍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사자암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출가의 길이었고 음력 10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사자암으로 가며 마음 속으로 "삼일수심..."을 거듭거듭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안거에 행자 노릇을 하고 새 봄에 수좌님들이 '호랑이 스님'이라고 무서워 했던 금오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깍았습니다. 참 이상스런 인연이지 뭡니까. 그 글귀가 나를 출가승으로까지 만들었으니 그것도 지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연이 생겼다 사라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그런 귀한 인연을 귀하게 가꾸며 살고 마음이 산란하여 탐욕스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사흘이라도 수행을 하면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가르침의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초발심자경문〉의 한 글귀를 맘에 새기고 글공부나 할 수 있길 바라며 출가했는데 그 글공부하는 인연도 출가하는 인연과는 다른 것인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의 은사이신 금오스님께서는 경전공부는 고사하고 '초발심'도 글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중이 글공부하면 신세 망치는 줄 알아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하나도 참선 둘도 참선 셋도 참선만 하라 하셨습니다. "참선하여 마음깨쳐야 생사해탈을 한다"는 말씀을 평생을 두고 한결같이 하신 어른을 모시고 살았으니 무슨 글공부의 인연을 만났겠습니까.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금오스님의 말씀이 '經을 경으로 안 보고 경을 글로 보면 안된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경은 부처님의 마음을 문자로 전한 것일뿐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경을 글로 보면 알음알이를 토대로 언어를 희롱하고 마음을 가식하여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된 습성은 경의 가르침을 출세와 명예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으로 연결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배는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오스님께서는 경전을 공부하여 그 문자풀이에나 얽매이고 그 뜻을 풀어 아상만 짓는 것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아예 문자를 가까이 못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실제로 스님께서는 무섭게 정진하셨는데 며칠씩 잠을 털어내며 용맹정진 하시는 것을 자주 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수마(睡魔)를 이기는 것만도 큰 공부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기정옹 전통 쑥좌욕기
'옷을 벗고 앉아서 약쑥, 황토, 원적외선의 신비한 약성을 하복부에 집중적으로 쬐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 실용신안등록원:제96-23062
• 의장등록출원:제96-16268

전통 쑥 좌욕기의 3대 기능과 효능

〈1〉좌욕효능(1日 30분~40분) : 다음과 같은 질병치료 및 예방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성 : 부인병, 냉·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물혹),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군살제거, 갱년기장애 등

▶ 남성 : 치질, 변비,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진,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치료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설계)
• 높이 27㎝×직경 33㎝

※편리하도록 좌대속에 전기가열기(히타)를 설치하여 끓이는 방식은 장시간 사용시 전기과장을 받아 자궁속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재래식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전통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원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지체에서 발생되는 악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성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2〉얼굴 피부찜질 미용효능



①얼굴피부 노화방지, 피부탄력유지 및 회복(주름살이 현저히 줄어듬), 피부윤택(팩 등의 사용불필요)
②비염, 축농증, 코감기,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등
③눈피로회복, 시력회복, 안과질환 등에도 큰 효능

(1日 20분정도 사용으로 상기 3가지 효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시면 본인이 직접 느끼십니다.)

〈전통 쑥 좌욕기의 구성 요인〉



〈3〉허리요통, 팔·다리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 수족냉증, 복부냉증, 피부질환등이 있는 분은 좌욕기위에 아픈 부위를 대고 찜질하면 큰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日 30분이상〉

• 강화약쑥과 황토가루 100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온장치가 장되어 있어 1시간이상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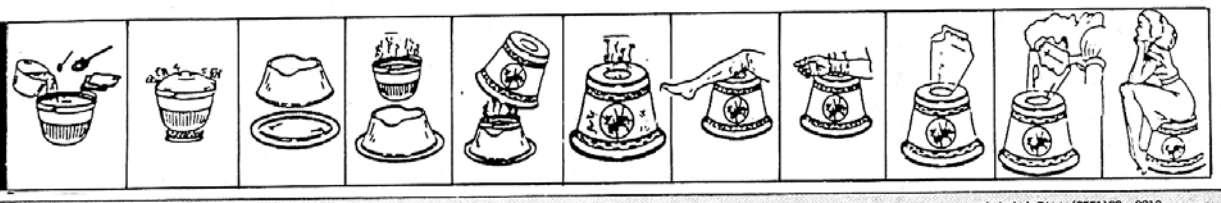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결,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39-1906/(야간) (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전통쑥 좌욕기 사용방법



서울(02) 강남:553-0261~2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중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 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과천:(02)503-9352 부평:(032)516-9845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해운대구 746-2621
대구(053) 달서구:635-9734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동구:253-6446
경남지역: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울산:(0522)74-7536 진주:(0591)43-4655 신청 : 0596)73-0039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전주:(0652):75-6733
경북지역: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지상법석

인연 가꾸며 삽니다"

"일곱집 밥 얻어 중생과 인연 맺으신 부처님 가르침 되새기는 삶을"

"기도하는 마음자리에 좋은 인연 싹틉니다"

끈 매고 푸는데도 道 있으니 세상살이가 수행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젊은 수좌들에게는 호랑이 스님으로 통하셨지만 진짜 호랑이 같이 무서운 면모는 스님 스스로의 수행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금오스님의 가르침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경전공부와 인연이 먼 상태로 출가승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축발한 해에 전쟁이 터져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서암스님, 도천스님과 일행이 되어 안면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길에 끼니때가 되면 밥을 얻어 먹었는데 서암스님과 도천스님은 밥을 많이 얻어와서 내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밥을 얻으러 갔는데 때가 지나 밥이 없다는 아낙의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져서 일행 있는 곳에 와 보니 도천 스님이 밥을 많이 얻어와 내몫을 남겨 놨더군요. 그후 나는 동냥(탁발)을 더러 다니긴 했지만 밥을 얻으러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금오스님께서 화엄사에 계실적에 일년에 한두번씩은 모든 대중을 동냥하러 내 보냈습니다. '무연중생불능제도(無緣衆生不能濟度)'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는 이 의미는 부처님 당시부터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칠가식(七家食 일곱집의 밥을 얻어 식사함)을 하셔서 여러 중생과 인연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금오스님께서도 그런 인연만들기를 위해 납자들을 동냥길로 내보내셨는데 차비를 제법 쥐서 보내시니 동냥이야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스님의 염불보시와 재가인의 재물보시가 어우러지는 동냥을 하며 참 많은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공양의 의미를 제대로 배운 셈이지요. 무엇보다 하심(下心)의 도를 배울 수 있었고 재물, 그것도 정재의 청정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흔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재물의 소중함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흔할수록 아껴야 합니다. 흔한 곳에서 귀한 걸 알아야 밝은 눈인 것입니다. 흔하다고 흥청망청 하면 이내 낭패를 당합니다. 모든 물건은 인연을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어서 지금 흔한 것이 언제 귀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밥과 국도 내가 직접 동냥을 다니며 얻은 것이라 생각하면 음식 쓰레기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불자님들은 일곱집의 밥을 얻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지어 성불의 길로 이끄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심하고 겸소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참선하여 마음 깨쳐야 생사해탈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깨치질 못해 이걸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금오스님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슨 꾸러미를 묶은 끈을 절대 가위나 칼로 자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싹둑 자르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날카로와 지고 예민해진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끈을 풀어서 물건을 쓰게 하셨는데 인간의 마음도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고 풀어 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보따리를 쌀때도 보자기 끝을 옭아 매지 못하게 하시고 고를 지어 매게 하셨는데 풀기 쉬워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남과 상대하여 얘기할 때도 하찮은 것이라고 흘려 버리지 말고 그 속에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삼가하여 막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도 말로 인해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행위 하나하나가 다 마음을 다스리고 닦는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쓰임을 온유하게 하고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마음이 없는 순간이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 선방을 다니며 정진을 하다보면 어떤때는 정진이 잘되어 신심이 솟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방에 앉아 있는 자세는 하나일지라도 그 속의 마음이란 그렇게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겁니다. 스스로 마음에 속으면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니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용맹심을 한 순간도 버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그대로 수행입니다. 끈 하나 매고 푸는데도 도가 있음을 알면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허망한 것이라 할 지라도 그 속에 무궁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알면 최상의 열락이 있으니 열심히 참선하여 마음자리를 흐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인연 얘기를 했지만 기도는 선한 인연을 만드는 불가해한 힘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자리에 좋은 인연의 씨가 싹트는 것입니다.

밥을 얻어 먹으며 안면도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 다시 계룡산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그 난리통에 기도의 인연으로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대긴데 인민군에게 잡혀 계룡면 면소재지의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다른 곳에서 잡혀온 사람들 30여명이 그 좁은 방에 쪼그린치 닷새를 지냈는데 나는 관음주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관음주력만 하며 닷새를 보내고 나니 해거름에 소장(지서장)이 나를 불러 절로 돌아가라 더군요. 뒤 돌아볼 겨를 없이 절로 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어느 스님이 지서로 와서 사정사정한 덕에 내가 방면이 되었더군요. 나는 관음주력의 영험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머지 사람들은 공주로 끌고가 길에 쭉 세워 놓고 따발총을 난사해 다 사살해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등에 식은땀이 흘러 내리더군요.

그런데 그 무자비한 사살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는 갑사 위에 사는 스님(대처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끌려간 후 아버지는 스님된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닷새밤을 지새운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총알을 여섯군데나 맞았는데 모두 살갗을 스치기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는 그런 기적도 있는 것인데 나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잡혀온 30여명 가운데 한사람은 잡혀 오자마자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돌려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신원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와 절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잡혀가고 바로 타계를 했으니 어미의 목숨을 아들의 목숨과 바꾼 격이 아닙니까. 실로 눈물겨운 일이어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대학생의 형은 인민군에 잡혀 대전교도소에 있었는데 어느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일 밖에 나갈일이 생기는데 나가는 즉시 뒤돌아 보지말고 도망가라"고 했답니다. 정말 아침이 되니 모두 마당으로 집합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틈에 도망을 쳐서 살아 났다는 얘기도 뒷날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성으로 기도를 하고 몸을 버려 아들을 구했고 또 다른아들은 영혼이 되어서 구했던 셈입니다. 이것이 기도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불가해한 인연의 힘인 것입니다.

"탁발하며 공양·下心 정재의 의미 몸으로 배웠죠"
"혼한세상 흥청망청하니 음식쓰레기도 문제"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자리를 편케 하는 것이 참선이고 내 몸을 안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다 중요한 불자들의 실천 사항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불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마음자리를 잘 조절하여 편케하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좋은 인연의 실체를 영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3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0

절대無와 믿음

'無我' '空' 깨달음만으로 체득하는 경지

믿음없이 머리로 심경 풀면 오류 범해

반야심경은 진리를 '공'이라 표현하면서 '공'을 설할 뿐 '믿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야지가 없는 범부한테는 '믿음'이 중요하다. 알음알이로써는 알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반야심경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없이 반야심경을 읽으면 '불교는 허무를 주장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믿음없이 '공'이나 '무'를 풀이할 때 범부가 범하는 오류는 이런 것이다.

진공에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진공'이나 '무'를 자기식으로 먼저 그려낸다. 대부분 텅빈 공간을 먼저 생각한다. 텅빈 공간 가운데서 하나의 점과 같은 우주가 생겨나 팽창하는 것을 생각한다.

시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려낼 수 없는 것이다. 시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일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시공간마저 없는 상태를 상상해내지 못한다. 이것은 '아'나 '마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이나 환경들에서 벗어나 일체의 집착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상태를 자기식으로 그려낸다. 욕심도 없고 악한 마음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그려낸다.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욕심이란 인간의 활성(活性)이 나타난 것이니 근본적으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활성은 활성일 뿐이다. 활성이 없다면 삶의 의미를 잃을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집착에 의해 활성이 이기적으로 나타나 타인을 해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즉 집착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위를 하게 되므로 경전은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집착가운데 가장 끈질긴 것은 아집이다. 아집마저 벗어버린 마음이라야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간과 물질도 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듯이 '아'마저 벗어버린 마음을 보통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다. '아'를 벗어난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어의 상보성 원리에서 설명하듯이 자연은 본질적으로 이중성으로 되어 있다. 분별지로 보는한 이중성을 이루는 전체를 볼 수 없고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만 보게 된다. 분별지로 보는한 항상 주와 객으로 나누어 '아'를 주장하고 나머지를 '객'이라 하여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억지로 둘로 나누어 보기에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물질도 없고 시공간도 없고 아도 없는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어서 경전이 '무' 또는 '공'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경전이 '시고공중 … 이무소득'이라고 설한 내용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아'도 없는 상태, 즉 주·객이 일체로 된 상태에서 본 내용을 설하는 것이다. '공'이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진대 거기에 무슨 수상행식이 있겠으며 의식경계가 있겠는가? 거기에 무슨 밝고 어두움의 상대적 구별이 있겠는가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 무슨 늙고 죽는 것이 있겠으며 고집멸도가 있겠는가?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 '아'가 따로 없는 상태에 무슨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겠는가? '공'에 관해서는 분별지로 판단하여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해도 틀리고 저렇다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깨달음만으로 체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어야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면 경전을 버려야 한다.

물리학은 '공'을 기술할 수 없고 이중성을 발견하고 자연의 성질을 설명해도 물리학자들도 '공'을 체득한 것이 아니지만 물질과 시공간의 성질을 여러모로 자세하게 따져 자연이 단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심경이 말하는 내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물리학은 보통 사람들에게 믿음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납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고 독
이자임결혼연구원

여름이
그리움 되어
도시의 끝 자락을
물들입니다

침묵과 고뇌의 밤
수없이
적막을 개프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그대의 닮고 깨끗한 이슬이 되어
가슴으로 젖어 듭니다
손잡바란
달빛 창기 스미는 그대 창가에
풀잎 끝 마다
그리움으로 영키어
가만히 내려앉은
밤 이슬이 되겠습니다
머얼리
파랗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업고
서로의 먼 눈빛으로
젖어

고독은
세벽을 기다립니다.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강좌안내

지난 9일 열린 '원효연구원' 개원식 법회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원은 민족의 큰 스승이신 원효사상 선양의 한 일환으로 원효성사의 〈법화경종요〉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매월 제2주, 제3주 (土) 오후 3시 (12월 14일 개강)
■ 교재 : 원효스님의 법화경 종요
■ 강사 : 운제스님
■ 문의 : 원효연구원 (02)723-0425

▣ 회원모집
본연구원에서는 원효사상 연구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110-1 견지빌딩 4층
원효연구원
원장 이영무

불교달력

"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 화 : 02)269-9755
FAX : 02)268-2391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들은 떠나다

우식행자에 외해서 세 사람의 심상치 않은 속덕공론이 인담에게 알려졌다. 인담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우녀에게까지도.

도리어 우식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인담으로서는 상수의 장례를 마친 뒤에 바로 잇대어진 그런 일을 신중하게 헤아려볼 필요가 있었다.

아니, 그 자신도 이제 무욕도 수행의 시절이 다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난데없는 예감이 바다 멀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보타락가섬으로 떠나는 상수의 그 비장한 장례를 통해서 생겨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욕도를 오랫동안 무인도, 고도로 있었던 것을 그 갈매기통이 덕지덕지 늘어붙은 바위등성이 섬을 세상이 잘 모르는 수행도량으로 연 의지를 통해서 아직도 무욕도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끝에의 예감이나 현재에의 확신 어느 쪽에 대해서도 무척 조심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모든 일에 삼가하기 좋아하는 심성이 깊은 처녀가 깊은 우물에 내리는 두레박질을 아주 경건하게 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런 인담은 이따금 우녀와의 둘만의 대화에서는 이 섬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를 은밀한 화제로 삼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몇달전 거의 태풍에 버금하는 큰 비바람이 불어닥쳐 파도기둥이 무려 열다섯길 쯤이나 치솟아가며 무너지기를 되풀이하던 그 억센 비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그 비바람과 미쳐 날뛰는 파도와 파도기둥의 포효 속에서 입은 옷이 젖을대로 젖은채 거의 딴 몸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무욕도 도량을 닫아버릴 것인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를 그 자연의 폭력과 더불어 서로 큰 소리로 외치며 주장한 적이 있었다.

"이제 이 도량을 그만둬요!"라고 우녀가 외쳤다.

"그만 두다니! 그런 소리나 할테면 혼자 이 파도에 몸이나 보시하구려."

"인담스님! 당신이 아무리 이 섬을 지키려 해도 안될 말!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시절도 까먹는 무사승(無師僧)하고는 무엇하나 뜻이 같을 수 없지… 없구말구."

"허허 내가 보살을 기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부풀려 놓았구나."

"인담! 당신은 이 우녀가 낳은 아비 없는 자식임을 왜 몰라… 전전생(前前生)에 당신은 내 태 안에 잘못든 씨앗이었어."

"허허 이런 귀신이 씩은 송장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군."

그러나 파도기둥의 윗부분이 큰 덩치로 밀려서 그들은 함께 발채 아래의 마당에 쓰러져서 그 물살에 저만큼 떠내려가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어느 쪽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서로 엉겨있었다. 가까스로 휩쓸려가는 파도의 끝자락이 그들을 바위 끄트머리에 남겨놓아서 바다 쪽으로 밀려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 껴안아진 채 바위너설 모서리를 꽉 붙들고 있었다.

그런 동안 그들은 이 섬에 온 이래 처음으로 음양으로서의 욕정이 일어난 것이다, 세찬 비바람은 그칠줄 몰랐다.

대중들도 이런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할 수 없게 섬 전체가 비바람에 내맡겨졌던 것이다.

인담과 우녀는 처음으로 격렬한 자기주장 끝에 파도에 얻어맞은 피동체로서 뜻밖의 사태로 나아가게 되어 어쩔줄 몰랐다.

하지만 우녀는 그녀의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잡아채어 끊어버렸다. 108개나 되는 염주 알이 다 흩어졌다.

"이 따위 욕계(欲界)의 장난 그만 둡시다. 이게 바로 괴로움의 세상을 괴롭지 않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것이오."

"말이 많아!"라고 인담이 꾸짖었다.

"어서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에나 올라갑시다. 서로 듯어도 그것이 운우지정이 되고 아기를 배는 일이 될테니…."

"망상이 많아!"

그러는 동안 기어이 그들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밀려나가 허우적대게 되었다. 벌써 짠물을 실컷 들이키게 된 우녀를 인담이 필사적으로 이끌어서 밀려오는 파도의 등을 타고 바닷가의 바위모서리를 가까스로 붙잡을 수 있었다.

인담도 우녀도 입었던 옷가지가 어느새 벗겨졌고 맨몸이 바위 모서리에 다쳐 피가 씻겨지는 상태였다.

그들은 한가닥 수치심 따위도 없이 반벌거숭이가 되거나 맨벌거숭이가 된채 그들의 처소로 기어가야 하였다.

그런 뒤로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평상심대로 돌아가 무욕도의 살림을 태연히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 사이는 그 이전처럼 화합하지 않았다. 우녀는 우녀대로 이곳을 마감할 생각이 자라났고 인담은 그런 우녀를 막아야 할 뜻이 스멀스멀 일어났다.

홀로 나고 홀로 죽고 홀로 가고 홀로 오고(獨生獨死獨去獨來)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입이 이 말을



102

"이제 이 도량을 닫아요" 우녀가 외쳤다
"그만두다니! 그런 소리 할테면
이 파도에 몸이나 보시하구려"

그러자 상을행자가 그 아름다운 얼굴에 이 세상에서 처음 나타내는 분노 가득히 "이제 보니 당신들은 부처님과는 10만8천리나 멀리 있는 중생들이군요!" 하고 소리쳤다.

이렇게 되자 인담 우녀는 물론이고 효영 명오 그리고 어린 행자들까지 모여들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그들의 모사가 다 알려진 마당인지라 그들 세 사람들도 처음 당황해하는 마음을 바꿔서 무욕도의 사람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였다.

"도대체 부처님도 모시지 않는 도량이 무슨 도량이야! 여기는 뭡시 인담 우녀가 도망쳐 와서 사는 곳일 뿐이야."

"……."

"부처님의 법이란 것이 뭐냔 말이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헛되다 헛되다 하면서… 나 없다 나 없다 하면서 내가 제일이라고 떠벌이는 수작이나 부리면서…."

"……."

"어디에 붙어있는 줄도 모르는 허깨비 천축에서 도를 얻었다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

"지금 조선이 부처님을 때려부수고 태우고… 중들은 도성에 들여놓지 않는 까닭이 있지… 있구말구."

"……."

"이 무욕도에서 공부 잘하는 놈이 극락가나? 지옥밖에 갈 데 없지…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이나 거저 축내고 있는 나날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이야."

"……."

"배 타던 우리야 배 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그렇게 나오는 명오에 더럭 겁이 났다.

명오는 태껸에 능한 사람이었다. 송도 상상(夢商)들의 먼 길에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해주는 호신술로서의 태껸의 유단자였으나 효영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

세 사람의 불붙은 폭언의 입이 다물어졌다.

"이 불쌍한 놈들아. 어서 꺼져라… 네놈들은 뭡시 예성강 나루에 돌아가기 전에 자승으로 갈터인즉."

명오는 인담이나 효영에게 의논 할 겨를도 없이 세 사람을 한번씩 넘어뜨려 기운을 죽여놓은 뒤 그들을 일으켜서 선착장까지 걷게 하였다.

"자…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내줄 처지가 아니다… 그런즉 이 때배나 타고 건너가거라."

세 사람은 머뭇거렸다. 명오가 한번씩 명치끝을 질러주었다.

"에루!"

"에루!"

세 사람은 배를 끌어뒨채 바위등성이를 내려갔다. 세 사람이 타자 제법 큰 때배가 물에 출렁였다. 삿대 두 개를 명오가 던져주었다.

"이놈들아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나 열심히 외우며 예성강으로 가던가, 삼도천(三途川)으로 가던지 하여라."

그때였다. 곽효영이 명오뒤에서 나아갔다.

"자네들 어디로 갈텐가? 도대체."

"……."

"아무래도 며칠동안 바다 위 날씨가 심상치 않으니… 며칠만 여기 있다가 가면 어떻겠나…."

"……."

"상을낭자… 그대도 여기 있다가는 좋은 시절 다 허송하고 피골이 상접한 마귀들린 노파가 되고 말걸… 우리하고 가자구… 가서 영웅호걸의 마누라가 되어 밤새도록 넋을 잃는 즐거움을 누리란 말이야… 그게 극락이란 말이야."

이런 난폭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명오가 박뭘 길성 순풍이 앞에 나아갔다.

"더 지저귈 것 있나?" 라고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머리까지 질끈 동여맨 뱃짐을 슬그머니 사리면서 한 발짝씩 물러났다. 그들로서는 이 섬에 함께 건너온 효영이나 명오도 그들 편을 들어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속셈이었는데

"효영형님, 안됩니다. 그대로 보냅시다" 라고 명오가 단호히 막아섰다.

"가는 것을 막으면 흐르는 물을 막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 효영과 명오는 친구 사이였는데도 이곳에서는 서로 극복한 경어를 주고받는 처지였다. 세 사람의 때를 선착장 구석에 걸쳐둔 긴 막대기로 함께 밀어버렸다.

결국 때는 바다 위에 떴다.

"다시 이 도량에 몰아올 생각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명오를 인담과 우녀들도 그의 뜻을 따르는 듯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림 · 조향숙

"상을낭자! 영웅호걸의 마누라가 되어…"

"이놈들아 어서 꺼져라"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성격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취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디스크 · 관절염 · 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절 · 척추 · 골반 · 교정법
◆ 음양오행 · 기공 지압법
◆ 목 · 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비만 · 중풍예방 시술 · 지도
전화 : 543-7306 · 711-4370
長三洙 척추교정 · 지압원

小白山 령통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및 휴양하실 몇분을 모십니다.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숙식 제공 및 1인1실 · 겨울보일러
연락처 : (0444)22-1094 22-0347

포교당 양도
▶ 구리시 중심가 최고 요지
▶ 9년 전법 도량
▶ 약 40평(100~150명 법회가능)
▶ 비용 : 3,500만원(상담)
▶ 보증금 1,000만원에 2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일신상의 이유로 급히 양도코저 하오니 문의바랍니다.
관음정사
전화 :0346)67-2812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5-1
박인성 법사

탈종공고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746번지
사찰명 : 용 담 사
주 지 : 배 현 풍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 · 종풍을 수행 할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1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님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사람 : 하동수
신문을 보는 즉시 연락바란다.
누나 하미영

포교당 안내
●위 치 : 망우 사거리 ●평수 : 30평
●보증금 : 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천만원
●연락처 : 02)494-3929 (5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明堂 사찰부지(급매)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조례리) ■임야 : 3,530평
■가격 : 평당 6,500원(시세절반값, 일시불조정가)
■특징 ▷2차선 도로 인접(교란도 편입과 도로에서 상계지 11m)
▷관광호수 근접, 88고속도 거창 IC에서10분, 명수공원, 기도원, 회사연수원부지, 펜션지목임(다툼도산)
▷명당터(월제관형국)지점, 산세수려함
연락처 : (0343)71-7242, 74-7775(산주)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20년 전통의 모범업소(관허여의도 503호)
소망 결혼 상담소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정성 반려자를 불자님께 맹어드리겠습니다. 김은이 합장
초혼 : 의사, 박사, 판 · 검사 등정고시 합격자
재혼 :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 책임성혼당당 —
문의전화
주간 (02)783-1777
야간 (0343)47-1046 47-3793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법천(제천사) 대적광전 법상 · 경상
• 의왕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사동(대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복전함
• 음성(성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심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신선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 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대표 | 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해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법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천룡사 : 불단, 문짝
불교아대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포교원 운영하실 분
추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 월세 60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늙지않는 피부관리(남 · 여)
기미 · 여드름 · 검버섯 · 늘어진얼굴
불로장피부관리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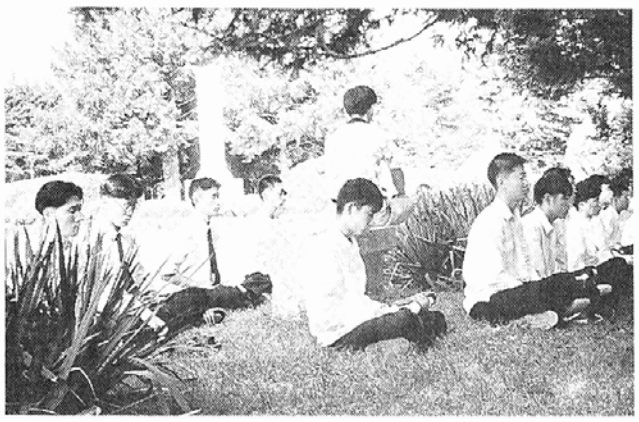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고력 배양 중·고교 명상반 정서 순화

'명상' '참선' 등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 한 특별활동프로그램이 전국의 각 중·고등학교에서 붐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특별활동시간만되면 명상반에서 수업받기를 너도나도 꿈꾼다.

명상반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만큼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중·고등학교 실시되고 있는 각종 불교반에는 신입회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교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청주농업고등학교(교장 박정서)다. 청주농업고등학교는 '실천의지의 인성교육' 일환으로 지난 3월 교내 특별활동시간에 명상수련반을 정규프로그램으로 개설했다.



◇청주농고는 매주 특별활동시간에 명상수련반을 개설, 인성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명상수련반은 매주 명상수행(학교나사찰), 명상이론 강의, 토론, 사찰답사,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명상수련반의 활동 가운데 "금주의 화두(물음)"는 상반 운영이후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급신장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금주 화두수행·이론강의·사찰답사등
청주농고·증평공고 등 특활프로 운영

학생 관심고조…윤리시간도 활용

학생들의 사고력 배양과 정서순화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유경〉, 〈법구경〉 등 각종 불경·불서와 〈탈무드〉등 양서에서 구절을 발췌해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공통된 화두를 주고 1주일동안 생각하게끔 하고 발표회도 갖는다.

이같은 명상수련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날로 메말라가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상수련이 교사들과 학생들의 큰 관심을 얻자 학교측은 윤리시간을 할애해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명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명상수련반 지도교사인 최시선교사(국민윤리 담당)는 "요즘 각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교육이 많지 않다"며 "매주 실시되고 있는 명상반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청소년 포교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포교를 위한 불교활동 특활프로그램은 충북 증평공고의 참선반, 광주 전남여상고의 문학반, 괴산 형석고의 철학반 등을 비롯 전국의 각 중·고등학교에서 폭넓게 실시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일선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불자들의 원력에서부터 비롯됐다. 교사불자들은 "기존에는 불교학생회란 이름으로 동아리가 있었으나 종교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해체된 경우가 종종 있었고 학생들의 반응 또한 높지 않았다" 며 "장기적인 청소년 포교와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리나 의식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불교적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이 선행될 때 더 큰 포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탐방

서울대 선우회

전공지식 동원 날카로운 교리문답

법회끝나면 화두참선
주력·관법·삼천배 정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반은 서울대 학부생들의 불교수행모임인 선우회(禪友會) 법회가 있는 날. 지난 4일 저녁 7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정선원, 15명의 서울대 학부생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한 주간의 수행체험을 서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어 지도법사인 윤종국씨(28·서울대 수학과박사과정)의 실질적인 수행지도법문이 계속됐다.

수재들이 모인 불교모임이라 법문과 토론내용도 아카데믹하다. 조금이라도 모순된 점이 보이거나 의문점이 생기면 여지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연기론과 스티븐 호킹의 특이점이론('대폭발'과 함께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다는 물리학 이론)과의 비교 등 전공지식을 동원한 신선한 문답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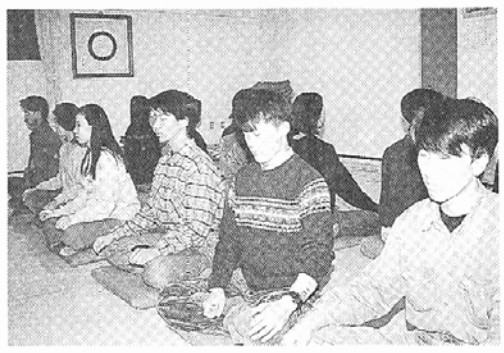
법회가 끝나면 자율적인 저녁참선이 이어진다. 50분 참선에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한다. 그러나 저학년생을 포함한 초보자들에겐 먼저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주력(呪力)수행과 관법(觀法)을 절충한 방법으로 공부를 지도한다. 이런 수행을 통해 '선정(禪定)의 힘'이 생기면 화두참선을 병행하게 한다. 이런 철저한 수행지도 탓인지 신세대답지 않게 용맹정진하는 회원들이 많다. 그래서 때때로 전회원이 마음을 모아 삼천배를 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철야정진 대신에 삼천배를 마친 김광현군(22·서울대 전기공학4)은 "삼천배를 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번뇌에 휩싸여 있었던가를 느낄 수 있었다. 삼천배를 해낸 의지력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회상했다.

지난 84년 창립된 선우회는 학부 졸업생과 일반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청정회를 지난 94년 12월에 잉태시켰다. 지금은 청정회가 학교 밖에 따로 마련한 15평 가량의 청정선원에서 법회를 번갈아가며 연다. 선우회 회원은 17명이고 청정회 회원은 50여명이다. 이중 30여명은 서울대 졸업생이나 타학교 재학생이며 나머지 20여명은 고시생, 직장인 등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다.

선우회는 매주 월 오후 6시반, 청정회는 매주 일 오전 10시반에, 신입회원은 일요일 오후 3시에 정기법회를 갖는다. 저녁 참선은 매일 오후 7시부터 3차례 있다. (02)878-1843

김재경 기자



◇ 선우회 회원들은 매일 저녁 7시부터 3차례 자율적으로 참선을 행한다.

졸업생등 50여명
'청정회' 결성 불교공부

신행 게시판

불교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오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서울 구룡사에서 제18회 겨울불교학교지도자강습회를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겨울불교학교의 준비와 실시, 찬불가와 율동, 종이접기, 놀이활동 등이다. (02)738-7860

은적가족 룸비니의 밤

대구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원장 법민스님)은 오는 25일 앞산 청소년 수련원 대극장에서 '은적가족 룸비니의 밤'행사를 갖는다.

어머니합창단의 발표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원아들의 재롱잔치, 도신스님 공연, 바라춤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053)621-1003

주부노래교실 개설

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부노래교실을 마련한다.

노래에 관심있는 주부면 누구나 동참 가능하며 찬불가·대중가요·합창곡 등으로 진행된다. (032)325-2161

원광대 대불련동문회

원광대 대불련 동문회(회장 차봉기·경주동산한의원장)는 오는 23일 오후6시 모교 교수회관 1층 연회실에서 96년도 정기동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문회에서는 자역별 동문회조직 발족과 학생회 후원을 위한 기금마련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0653)840-1643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은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 기획/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 1동 822번지
전화 (051)403-7077 팩스(051)403-1077
● 공동제작/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불교말레이시아(BTN) 전화 (02)3270-3300
● 공급처/ 유망 불교 음반 판매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찬불가·선법가 특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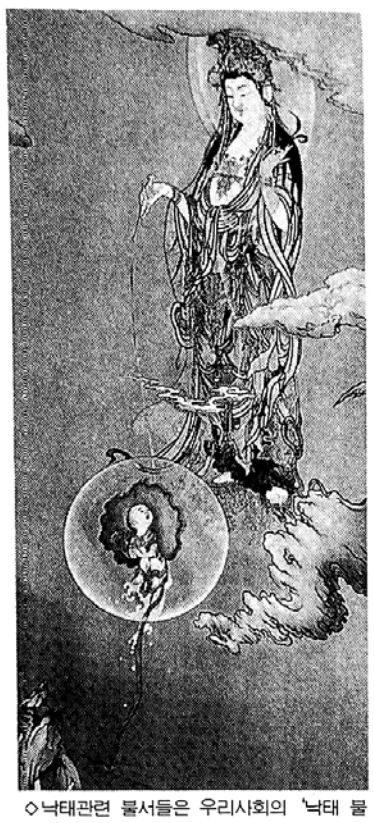
국내 최초 불교 뮤직 비디오
"임의 소식"

영원한 오늘을 살게 하는,
참생명의 노래!

과거, 미래 붙잡히는 미망 버리고
묵연히 오늘오늘을 걸어 가리니
그 안의 맑은 법미는 절로 깊어라.
(대행스님 작사, '환희 광명의 길' 중에서)



수록곡
1 임의 소식 (작사·대행 스님/ 작곡·김동환/ 2'02")
2 무상송 (작사·대행 스님/ 작곡·김동환/ 1'35")
3 내 마음의 주인 (작사·대행 스님/ 작곡·변규백/ 3'09")
4 생명의 실상 (작사·대행 스님/ 작곡·변규백/ 1'40")
● 선종관문 알아 보세 (대행 스님 작사)
5 마음의 불씨 (작사·대행 스님/ 작곡·서창원/ 3'47")
6 연등 (작사·선진규/ 작곡·김용호/ 1'54")
7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작사·맹석봉/ 작곡·이달칠/ 2'58")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린이 합창단 노래
8 주인공이 무엇일까 (작사·대행 스님/ 작곡·유익상/ 2'06")
● 환희 광명의 길 (대행 스님 작사)
9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작사·조용국/ 작곡·변규백/ 2'35")
9 빈손 (작사·대행 스님/ 작곡·김동환/ 2'09")
10 반야심경 (작곡·서창원/ 4'51")
11 그리운 금강산 (작사·한상억/ 작곡·최영섭/ 4'30")



◇낙태관련 불서들은 우리사회의 '낙태 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이다. 사진은 〈아가야, 용서해다오〉 중에서.

'영가천혼법어' '어둠의 빛으로…' '아가야 용서해…' 등

낙태 부도덕 다룬 불서 '봇물'

"너 뗐니? 나도 뗐어." 청소년 사이에 '낙태계'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유태환교수(인제대 의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수술의 86%가 불법이었으며,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77%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에서 한해에 실시되는 낙태건수는 약 4천5백만건(96년 2월 WHO 발표). 태아 3명중 1명이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이 불법태아성감별과 낙태시술을 해준 산부인과의사들을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한 것은 여아 낙태를 통한 인위적인 성비(性比)파괴가 비인도적 범죄일뿐 아니라 결혼제도의 붕괴, 성폭력 증가등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뒤늦은 인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임신중절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여성들의 '낙태는 살인'이라는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관련 낙태의 부도덕성과 낙태아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불서들이 사회의 시류를 반영하듯 계속 발간되고 있어 주목된다.

성우스님의 〈영가천혼법어〉, 자우스님의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묘각스님의 〈아가야, 용서해 다오〉, 자인스님의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현장스님의 〈떠도는 넋들을 위하여〉, 성덕스님의 〈불설 아미타경〉, 도서출판 '이바지' 편집부의 〈49재 공덕과 의미〉 등이 이러한 책들이다.

모두 낙태를 묵인해 온 도덕심에 경종을 울리고, 부득이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억울하게 사라져간 영혼들에 대한 사죄와 정성스러운 천도(薦度)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지난 9월부터 책방 여시아문 집계 베스트불서에 오른 〈49재 공덕과 의미〉는 현대의 영가천도 영험담을 수록해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 〈불설 아미타경〉은 아기영혼 천도를 위한 사경 책으로 눈길을 끈다.

물론 이같은 불서들은 〈타태경(墮胎經)〉〈불설포태경〉〈증일아함경〉〈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등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경전들은 한결같이 낙태(墮胎)를 살생으로 여기고 아비지옥(阿鼻地獄: 최악의 지옥)에 떨어질 극악한 죄라고 규정한다. 임신중절을 많이 한 부인들이 온갖 병에 시달리거나 까닭없이 불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낙태 영가가 태어나지 못한 생에 대한 집착과 원망때문에, 오랫동안 중음신(中陰身)으로 떠돌며 제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란 것. 이런 예가 바로 현세의 업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전은 "태아를 죽인 죄를 지었더라도 부처님과 불법을 통해 지성으로 천도 공양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고 설하고 있어 죄를 씻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생명존엄성 강조…"살생막자" 한 목소리
영가천도 영험담·사경책도 '눈길'

낙태아 천도에 가장 관심을 가져 온 스님으로는 파계사 주지 성우, 금강사 주지 자우,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등. 성우스님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낙태반대운동을 벌여왔으며 올해부터 1년에 두번 '태령영가천혼재'를 지내고 있다. 자우스님과 현장스님도 수년전부터 정기적으로 '태아영가천도재'를 지내고 있으며, 태아영가 영단(靈壇)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김재경 기자

화제의 책

네 발밑부터 살피라 | 정념스님 지음

30여 고승 경책·수행담등 법어모음



선사들의 간곡한 충고와 교훈이 담긴 글을 가려뽑아 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의 길을 올곧게 제시하는 법어집이 나왔다. 설악산 봉정암주지 정념스님의 〈네 발밑부터 살피라〉가 그것.

'수행자들에게 보내는 선사들의 권고'를 부제로 단 이 책은 한국 중국의 30여 선사들이 수행자들에게 주는 경책과 훈계를 비롯, 몸소 체험한 수행담과 수행도중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오도(悟道)에 들어서는 순간의 감동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수행자들에게는 수행을 점검하는 거울이, 禪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되돌아보고 마음밭(心田)을 다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장승 6천원〉

화제의 책

원효의 화쟁논리 | 사토 시게키 지음

'금강삼매경론' 중심 원효사상 조명



사토 시게키 교수(57·대불대)가 동국대 박사('93년)논문을 수정보완해 펴낸 〈원효의 화쟁논리〉는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원효사상을 조명한 본격적인 학술서다.

이 책은 모든 대승경전의 근본사상을 회통한 〈금강삼매경〉의 종지를 무이이불수일(無二而不守一) 사상으로 표현한다. 또한 그 구조가 바로 원효의 화쟁(和諍)을 표현한 이면성, 즉 귀일심원(歸一心源=法空)과 요익중생(饒益衆生=普法)을 밝힌 논리임을 증명한다. 부록으로 〈금강삼매경론〉의 서장역 북경판 및 돈황사본 일부분,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버클리대)의 〈금강삼매경〉 영역본을 함께 실어 비교 대조할 수 있게 했다. 〈민족사 2만3천원〉

화제의 책

불교심리학 | 루네 요한슨 지음

연기론을 심리학적으로 분석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루네 요한슨이 쓴 〈불교심리학〉은 불교의 연기론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그의 최후의 역작이다.

〈불교심리학〉은 십이연기론의 12요소 각각의 의미와 심리학적 의미를 팔리경전 중에서 각 항목의 뜻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연기론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음의 본질, 그리고 '자아'라는 환상의 본질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마음을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애착을 버리고 감각을 통제하며 감각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연기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실용적 심리학이란 설명이다. 박태섭 옮김. 〈시공사 6천5백원〉

부처님 일대기 '하늘길' 펴낸 자민련불자회장 **정상구** 의원



"인류구원의 자비사상 서사시로 풀어냈어요"

"머리로 높은 산 베어 보임은 가장 높은 道를 성취할 징조요 몸 바다속에 누워 보임은 중생 위해 나고 죽음 속에 있음이로다…."

정상구의원(71·자민련 상임고문)의 불교서사시 〈하늘길〉(시문학사 刊) 제1장 '하늘 문 여는 불타의 전신(前身)'에 나오는 한 구절. 국회 종각회 고문이자 자민련불자회장인 정상구의원이 세종이래 편찬한 〈월인천강지곡〉 이후 처음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서사시 〈하늘 길〉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알기쉽게 가슴에 와닿도록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정의원은 "〈하늘 길〉은 부처님이 이욕적정(離欲寂靜)의 묘법을 닦아 깨달음의 길, 즉 열반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또 "〈하늘 길〉이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자비사상을 중심축으로 한 것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남도 함께 깨닫게 해야 한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타인의 성불을 돕는 것이 불자의 임무'라는 인식을 항상 지니고 시작(詩作)을 했다고 말한다.

〈하늘 길〉은 방대한 서사적 진술, 경전에 가까운 무궁무진한 진리, 禪문답에서 볼 수 있는 게송체, 초현실주의 기법 등 특유의 독자적 기법 등으로 시사적(詩史的)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랑과 깨달음의 세계〉 등 30여종 이상의 저서와 시집을 낸 정의원은 한국현대시인협회 고문, 대한민국서화예술인협회 고문, 한국다도협회장 등을 맡고 있는 만능예술인.

테마답사기 '우리산 옛절' 발간

김장호·김승호씨 공저 지도·사전 수록 산천 '한눈에'



우리의 아름다운 산과 그 산에 자연스럽게 어울린 옛절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지형을 문학적으로 살펴나간 답사기가 나와 화제다. 동국대 김장호 명예교수와 서울신문 김승호기자(동국대 강사·국문학)가 함께 한 '테마가 있는 우리옛절 순례기'인 〈우리산 옛절〉(대원정사 刊).

그간 명찰을 주제로 한 답사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 책은 전국의 명산을 중심으로 거기에 들어선 절이며 암자를 찾아가는 형식을 밟아 나가기에 독특한 맛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기존 답사기와 달리 필자들의 시적인 아름다운 문체가 문학기행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감칠맛이 난다. 사찰연기 담 또한 그에 걸맞게 구성지며 자연스레 힘이 느껴온다.

시인 김장호교수는 전국의 산을 40여년간 오르내렸기에 그 산과 절을 그려내는 맛이 멋들어져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하게 한다. 또 사찰연기 설화를 쓴 김승호기자는 사찰연기에 대한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해박한 지식과 역사적인 안목으로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김장호씨



◇김승호씨

이밖에 상세한 안내지도와 생생한 사진이 산천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절들이 일반인의 눈에 생소하고 산 중턱이나 정상부근에 자리잡고 있어 그 산이며 절로 접어드는 안내지도를 곁들인 것.

신국판 354쪽, 7천5백원.

월간 '정토' 100호 발간



월간 〈정토〉(발행인 법륜)가 11월호로 통권100호를 기록했다.

지난 88년 5월 창간한 〈정토〉는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면서 4백여명의 영구회원과 유료회원 3천여명의 도움으로 전국의 군법당·교도소 등에 매달 1만7천여부이상을 무료로 법보시하는 등 지난 9년간 문서포교의 선두에 서왔다.

발행인 법륜스님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토〉지가 되도록 앞으로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월간 정토 100호기념 서암스님 초청법회'가 오는 20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02)3471-3145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8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	우 학	좋은인연
9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100선' 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혀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선화와 한국화의 만남"



◇소공 이명우 作 '달마'.

이명우·송헌씨 父子展 '화제'



◇부자선화전을 갖는 소공 이명우거사(왼쪽)와 아들 이송헌씨.

20~26일 조계종 불교회관서
달마도·'새' 주제 등 75점 전시

선화(禪畵)의 거장 소공 이명우 거사(73)와 소장 한국화가 석당 이송헌씨(37) 부자(父子)가 함께 선화전을 개최한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청사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리는 선화전(禪畵展)에는 달마와 포대화상 50여점, '새'를 주제로 한 한국화 등 총 75점이 전시된다.

"그림 그리는 자체가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50여년을 선화에 몰두해 온 이명우거사는 젊은 시절 당시 불화의 대가 김일섭스님에게 사사하며 강한 채색의 불화보다는 먹의 세계에 더 몰입해 선화에 정진하게 된다. 간결하면서도 유려하고 때로 격렬한 선으로 달마대사를 형상화하는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화풍을 이루어낸 이거사는 일본에서 연 달마화 208태(態)전을 필두로 대만 역사박물관에 초대되는 등 10회의 개인전과 100여회가 넘는 단체전을 통해 선화의 한획을 그은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들인 이송헌씨 역시 새 소 장승 물 등 자연을 화두로 해 사물의 본질을 찾는 대담하면서도 정제된 미를 표출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두 부자의, 치열한 구도심을 형상화한 선화의 오묘한 경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소 아버님께서는 무욕(無慾)에서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강조하십니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겠다고 지나친 욕심이 앞선다거나 감정을 내세운다거나 하는 욕심을 배제하고, 단계를 완벽히 거쳐야 한다며 항상 강조하시죠."

이거사의 맏아들이 법륜왕사 주지 선혜스님. 선혜스님 역시 서예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인사동에 불교전통문화원을 개설, 불교문화진흥에 관심을 가져왔다. 스님의 바로 밑 동생인 동명스님은 선방에서 수행에 힘쓰면서 선화를 잘 그린다. 막내 석련당 이미자씨 역시 동양화를 전공했으니 4남매가 아버지와 함께 불심예심(佛心藝心)으로 정진해오고 있는 셈.

이명우 이송헌 부자는 "오래전부터의 원력이었던 부자선화전을 통해 그동안의 결실을 보여주게 됐으니 이번 전시회를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끝없는 구도정진에의 포부를 펼쳐보였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68〉

학의 다리 길고 오리 다리 짧다

五觀萬物不齊也 (오관만물부제야) 만물이 한결같지 않음 내 알겠다
太岳秋毫各具天 (태악추호각구천) 태산이나 가을털도 각기 제 천분
鳧鶴短長誰使爾 (부학단장수사이) 오리 학 길고 짧은 다리 누가 시켰나
鷗烏黑白亦如然 (구오흑백역여연) 검고 흰 까마귀 갈매기도 그저 그런 것
夢中說夢眞堪笑 (몽중설몽진감소) 꿈속에서 꿈 이야기이니 참으로 우습고
牛背尋牛不足言 (우배심우부족언) 소등에서 소 찾으니 말할만한 것도 못돼
高下從來無二矣 (고하종래무이의) 높고 낮음 원래 둘이 아니니
古人會已詠鳶魚 (고인증이영연어) 옛사람 읊었지, 솔개 하늘 날고 고기 못에 뛴다고.

이 시도 무용대사의 시이다. 이 시는 강남부백에게 준 시이다. 지방장관에게 주는 시가 이렇듯 진리의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불이의 사념으로 차 있는 것을 보면, 저 편에서 먼저 교리적 내용으로 물어온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추론이 든다.

태산과 가을터럭이 크고 작음으로야 견줄 바가 못되지만, 각기 천연의 자성을 지니기야 다를 바가 없다. 겨자씨에도 수미산이 들어있다는 막힘이 없는 논리이다. 학의 다리 길고 오리 다리 짧지만 다리의 기능으로서는 차이가 없고, 갈매기 희다 하여 더 고상하고 까마귀 검다 하여 더 추잡한 것도 아니다. 빛으로서의 미추는 없다. 그러하건만 이 바깥 모양에 매달려 부질없는 판단에 빠진다.

꿈이란 허깨비의 미망어린 환상이다.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현실을 미망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꿈이다. 그렇건만 이것을 진실이라 생각하여 잠속의 꿈을 허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 꿈 속에서 다시 꿈을 이야기하는 꼴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깨달음이란 이 꿈의 깨어남이니, 깨다와 깨닫다는 동의어이다.

등에 올라탄 소를 모르고 소를 또 찾는 어리석음이다. 내 스스로 부처의 본성을 갖추었거늘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처의 본성이라 집착하면 또 미망에 빠진다. 그 생각마저 여의어야 한다.

끝 연의 솔개와 물고기의 이야기는 유가 경전의 '솔개 하늘에 날고 고기 연못에서 뛰니, 위 아래에 있는 한결같은 이치를 살피라'한 교훈을 인용한 구절이다. 유가의 선비에게 주는 시이니, 유불이 사물의 본질을 궁구함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는 내용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20년 음악포교 다시 20년 서원"

20일 목동 법안정사서 리사이틀 임주연씨

대한불교합창단 창단 멤버… '설산편지' 등 불러



"음악이 좋고 부처님 일이 좋아 무대에 서다보니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20년동안도 열심히 노래부르겠다는 서원의 자리로 기념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소프라노 임주연씨(법안정사 합창단 단장·47)가 20일 오전 11시 목동 법안정사(주지 효경) 대법당에서 음악활동 20년기념리사이틀을 갖는다. 임씨는 이 음악회에서 '나무석가모니불' '설산편지' '휴식' 등 찬불가와 '그리운 금강산' '별은 빛나건만' 등 가곡, 오페라아리아 등 모두 14곡을 부른다. 임주연씨의 본 직업은 약사.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해 학창시절 콩쿨대회에서 여러번 상을 수상했던 임씨는 故 김용호씨에게 발탁되면서부터 대한불교합창단 창단멤버로 불교음악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불교행사 교도소 위문활동 등 크고 작은 음악회에서 노래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쳐온 임씨가 가장 좋아하는 찬불가는 '설산편지'. 효경스님이 작사하고 故 김용호선생이 작곡해 임씨에게 준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도 부른다. 그 어떤 훌륭한 음악당보다도 법당에서 음악회를 열게돼 기쁘다는 임주연씨는 "성악가들이 부처님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즐겨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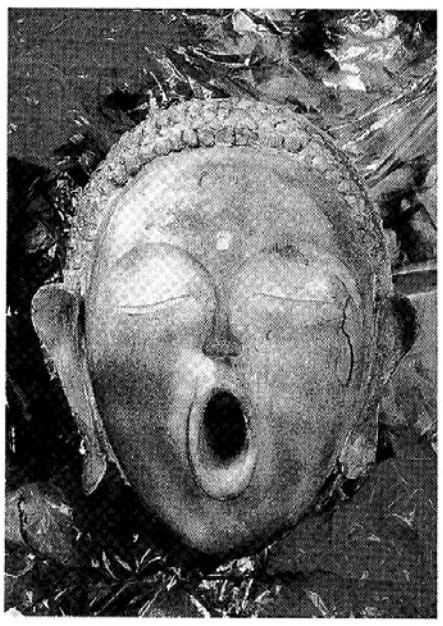
〈숙〉

김영희씨 작품 '부처님 두상'
獨 쾰른아트페어서 '인기'

독특하고 독창적인 닥종이전시회를 통해 유럽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김영희씨(52)가 독일 쾰른아트페어에 '라스베가스 부처(Las Vegas Buddhas)'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부처님 두상(頭像)작품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9~17일 열린 쾰른아트페어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유서깊은 전시행사로 세계 5대 아트페어 중의 하나. 갤러리 현대의 작가로 참여한 김씨는 닥종이를 섞어 자신이 개발한 특수소재로 부처님의 두상을 만들어 '팝아트와 동양사상을 잘 조화시킨 작품'이란 평을 얻었다. 부처님이 고대 등양의 정신문화를 상징한다면 라스베가스는 현대 미국의 도시문명을 상징하며 광고의 저속함과 함께 마력과 소음의 이미지, 오락과 돈과 쇼와 한손에 무장한 강도의 떠들썩함 등의 이미지를 혼재시켜 표현했다.

부처님은 명상과 침묵과 자아로부터의 해방과 깨달음 등으로 집약되며 유난히 크고 긴 귀와 조용한 미소, 노래하듯 동그랗게 벌린 입은 동양인인 작가 자신이 서양에 동화되어 함께 숨쉬고 노래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김영희씨가 독일 쾰른아트페어에 출품한 '라스베가스 붓다'.

'청법가' 작곡가 이찬우씨
찬불가곡 연주회 연다

25일 부산국제문화센터



'청법가'의 작곡가 이찬우씨가 성악가를 위한 찬불가곡 연주회를 오는 25일 저녁 7시30분 부산국제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의 작곡발표회에 이은 이번 무대에서는 '이와같이 나투신 부처님' '비구니' '청산은 나를보고' '부처님 마음' '마음 슬픈 날에는' 등 이찬우씨가 작곡한 20곡을 김성국 교수(부산여전) 김현숙교수(동아대) 이연화씨(동도사 부산포교원 합창단 지휘자)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중견 불자 성악인들이 동참해 연주한다.

지역에서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이찬우씨는 "그동안 성악가들이 부를만한 성악전문가용 불교적 서정가곡이 따로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불교음악영역을 넓히기 위해 이번 발표무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문학공모상 발표 12월17일로 연기

불교문학현상공모 운영위원회는 '96 불교문학현상공모 심사발표를 11월 30일에서 12월 17일로 연기했다. 심사발표는 개별통보 및 조계종 총무원 3층게시판에 공고하며 불교계 신문에 게재한다. (02)737-9684

문화소식

'김교각스님과 茶' 학술발표회 가져

김교각展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윤)와 (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원홍)는 공동으로 지난 15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김교각스님과 차(茶)를 주제로 학술발표회 및 헌다의식을 가졌다. 행사 1부는 김교각스님에게 드리는 헌다의식 및 법패공연, 2부는 학술발표회로 '중국구화산과 지장신앙(홍윤식 동국대교수)' '신라시대의 차문화(김명배 한국차학회장)' '김교각스님의 생애와 차사상(이형석 한국차문화협회 이사)' 등이 각각 발표됐다.

이형석씨는 "김교각스님의 생애로 볼때 우리나라 최초로 차가 전래되었다는 828년(김대렴)보다 먼저 100여년전 교각스님에 의해 중국에 전해졌다고 바뀌어야 하므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828년이란 기록은 단순한 기록으로 보아야지 '최초'란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박범훈씨 '동점' 초연

박범훈교수(중앙대·국립국악관현악단장)는 지난 14일 KBS 홀에서 열린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의 객원지휘를 맡아 '새산조' 등 6곡을 연주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박씨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동점(東漸)'을 초연했다.

10회 동국문학상

시 —조상기씨
소설—신상성씨
평론—조병무씨

동국대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회(회장 홍기삼)는 제10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조상기씨, 소설가 신상성씨, 문학평론가 조병무씨 등을 선정 지난 15일 시상식을 가졌다.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조계종 상담문의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년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돌끊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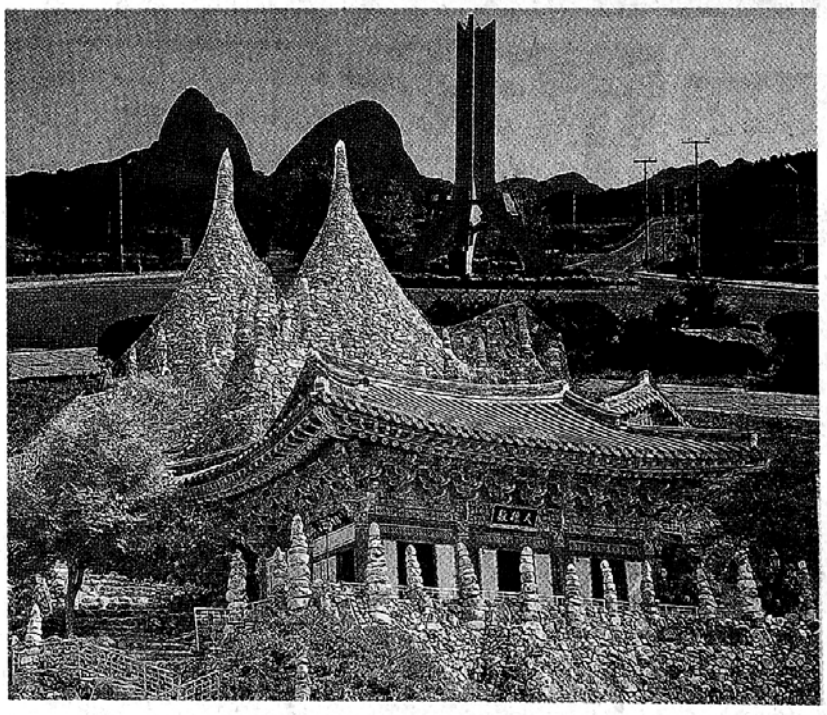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조동종 종합 불교회관

'보리원' 개원

교양대·유치원·시민선방·컴퓨터교실 운영

교양대 유치원 시민선방 컴퓨터교실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종합불교회관 보리원이 개원됐다.

조동종 총본산 용천사(조실 운과스님·조동종 종정)는 지난 7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에서 건평 3백12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보리원 개원식을 갖고 대중불교포교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염원했다.

오는 12월부터 학생모집에 들어가는 보리불교교양대학은 60명 정원의 불교학과를 설치해 불교교리의 체계적 교육을 등한 불교대중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년과정의 보리불교교양대학은 조동종에서 발급하는 포교사자격증도 수여할 계획.

또 컴퓨터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교육용 컴퓨터 30대를 구비하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스님반 종무원반 신도반으로 나눠 사무자동화(OA)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변지역의 주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어린이포교의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연화유치원을 불교회관 2~3층에 개원하고 50평규모의 시민을 위한 선방도 마련한다.

김원우 기자



◇지난 7일 개원한 용천사 불교회관 보리원 전경. 유치원 교양대 시민선방 컴퓨터교실 등을 두루 갖춰 대중포교에 나선다.

종단소식

태고종 26일 정기종회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오는 26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73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학교법인 태고학원설립승인 △승정추대 인준안 △97년도 종단세입 세출 사업계획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삼광사 육시 정진법회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지난 2일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9시까지 7박8일 동안 8각9층53불탑 원만조성기원 6시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매일 여섯차례 정진에 들어가 1시간동안 관음주를 염송하고 종회의장인 덕산스님 설법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편 내년 4월 회향예정인 8각9층53불탑은 법화경사상과 천태지자대사의 대승사상이 이 땅에 뿌리내려 불국정토를 실현하자는 원력이 담겨있다.

진각종 666명 수계식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진기 50년도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관정수계법회를 개최했다.

도흔종사를 전계아사리로 혜일종사를 갈마아사리 지광종사를 교수아사리로 열린 이날 수계관정법회에서 6백66명의 신교도들이 수계를 받았다.

해외불교

일본 샐러리맨 불교귀의 '바람'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해 승려를 일반공모한 비예산 연력사에는 3백여건의 문의전화가 빛발쳤으며 6:1의 경쟁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불교수행의 길을 안내해주는 도쿄국제불교학원에는 3백여명이 수도승으로 3년전 1백여명보다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에라'지는 일본 샐러리맨들의 불교입문이 늘어나는 것을 거품경제의 몰락과 감원열풍으로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입산하여 수도승이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티벳 라마불교 중국탄압 예고

티벳 라마불교에 대한 전면공세가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의 〈서장일보〉는 지난 13일자에서 "지난 수년간 티벳 자치구에 대한 종교정책실패로 인해 일부 지역이 무질서의 상황으로 변했다"며 "현 종교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장일보는 또 "사회주의가 종교의 필요에 적응할 수 없다"며 라마불교가 사회주의 발전필요에 적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장일보의 이같은 반불교 논평을 라마불교가 중국정부와 당의 지도력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원 및 승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자탤런트 대거 출연


◇강부자씨


◇김용림씨


◇김영애씨


◇심은하씨

MBC 새 주말극 '사랑하니까'

MBC TV가 오는 12월 초부터 방송할 새 주말극 '사랑하니까'에 불자탤런트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하니까'는 기독교집안과 불교집안 출신의 두 남녀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이른다는 이야기.

이 드라마의 남녀주인공인 기독교집안의 딸 역할은 불자탤런트 심은하씨가, 불교집안의 아들역할은 영화 '유리'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박신양씨가 맡았다.

또 여기에 신심 돈독하기로 소문난 강부자, 김용림, 김영애씨등 불자탤런트들이 출연한다.

목탁소리

'동대 기숙사' 반환요구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지난 12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동국대 기숙사' 반환을 요구하며 학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승가대학학생회는 "지난 10월 30일로 계약이 만기된 만큼 기숙사를 돌려줘야 하며 정규대학으로 승격하는 내년에 대학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동국대측에 반환확정일자를 명기한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반환되지 않을경우 물리적으로 점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승가대가 관환요구하고 있는 동국대 기숙사는 '기원학사'로 27년동안 걸출한 불교학자 군법사 불교운동가들을 배출한 학교의 전통이 살아있는 명소. 등기부상 대지는 승가대 소유이고 건물은 동국대 소유로 돼 있다.

이에대해 동국대는 "현재의 3학년들이 졸업하는 내년 12월까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봐져나갈 구멍은 줘야되지 않겠느냐"며 승가대학생회에 문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적으로 일이 처리될 경우 양측 어느곳도 순순히 물러날 기세는 아니다.

일산 제3캠퍼스에 건설하려는 새 기숙사는 8백명 수용의 청사진만 있을뿐 건립이 착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국대 총학생회 학원자주화투쟁위의 대응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기숙사생들의 집단적인 반발움직임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한동안 기숙사없는 대학이 될 수치스러운 운명에 처해있다. 53명의 기숙사생들이 졸지에 오갈데없는 지경이 되도록 기숙사 대책마련에 소홀한 동국대는 학생들의 불만 토로에 책임을 회피할수 없게 됐다.

또한 승가대학생회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같은집안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교계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상부상조해도 어려운 현실에서 동국대와 승가대의 기숙사건은 한발 양보하고 대화로써 풀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총무원도 교육환경이 개방화되는 시점에서 종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경주는 신라때 이미 계획도시"

고적조사단, 도로·배수로등 왕경실체 확인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 동편에 위치한 신라왕경지역의 발굴결과 고도 경주가 중국이나 일본의 왕경처럼 계획도시였음을 입증하는 유물과 시설물들이 다량 발굴됐다.

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은 지난 6일 오후2시 발굴현장에서 왕경유적 발굴조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87년부터 10년간 진행된 발굴결과를 종합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의 도로와 배수로, 4~10㎝ 크기의 여래입상 금동호신불 3구와 청동호신불 1구, 평기와, 우물 등 총2천2백36점의 유물과 시설물이 출토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일정간격을 두고 동서와 남북으로 난 도로와 배수로는 경주가 계획도시였음을 입증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들 도로와 배수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문헌기록에 보이는 방(坊)·리(里)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돼 지금까지 학설에만 그쳐왔던 왕경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왕경유적발굴은 지난 76년부터 83년까지의 황룡사지 발굴이후 보충조사를 하던중 도시유구가 출토됨으로써 본격화됐으며 이번 발굴에 이어 다시 전체 유적을 포함하는 장기발굴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방송가 소식

청주BBS 연내 개국 '가시화'

사옥 무상임대·사장내정등 진행순조

불교청주방송이 지난 5일 방송국 사옥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충청매일신문 빌딩 8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난항을 거듭해 오던 불교청주방송의 연내 개국이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방송국 사옥이전과 함께 불교청주방송은 지난 6일 청주 용화사(주지 월탄스님)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충청매일신문 정진택회장의 방송국 사옥 4년 무상임대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장추천권을 정회장에게 부여하는데 합의, 본격적인 방송국 개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써 불교청주방송국 개국을 둘러싼 일련의 사안이 대부분 일단락되고, 방송스튜디오와 시설장비 설치에 한창이다.

EBS '인터넷 종교활용'

EBS교육방송은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 세계'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종교활동'을 주제로 인터넷을 이용한 종교활동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보급된 인터넷이 종교에까지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기성종교가 갖는 종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하이파이오디오 참가

관음불교음향연구원(원장 일명스님)은 오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96하이파이오디오쇼에 참가한다.

국내의 300여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오디오 기기를 선보이는 이번 오디오쇼에 관음불교음향연구원은 가릉빈가형, 미루형등 모니터와 스피커 외 4종의 오디오 기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갓바위 소재 트롯가요

갓바위와 동화사 등 대구지역 불교명소를 소재로한 트롯가요가 출시돼 지역불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있다.

"백미서되 쓸어담아 백팔염주 목에걸고 팔공산 갓바위로 부처님을 찾아왔소…"라는 가사로 전개되는 '팔공산 갓바위'는 김삿갓씨(갓바위 음반기획 대표)가 작사를 하고 가수 홍로씨가 불렀다.

한·일 연예인 축구경기

한국과 일본의 연예인들이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는 친선축구대회가 일본 우라와시의 고마바스타디움에서 지난 10일 열렸다.

김흥국씨는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막되고 결승전을 일본에서 갖기로 결정난 상태에서 두 나라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월드컵 붐을 조성해야 할때"라면서 이번 경기를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친선경기를 열 계획이라 밝혔다.

불교사회복지 교재 조계종 4권 동시 발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최근 활동자가 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불교사회복지 관련 교재 4권을 동시에 발간했다.

사찰 및 불교복지기관 실무자, 사회복지학계, 일반불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번 교재는 제1권 〈불교와 사회복지〉, 제2권 〈자원봉사, 삶의 보람〉, 제3권 〈간병봉사의 이론과 실제〉, 제4권 〈장의예식봉사의 실제〉(조계종출판사 刊)등이다. 이중 3·4권은 조계종 사회복지교양대학 교재로 사용된다.



〈불교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 및 기능,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사회복지 방법론 및 분야별 복지사업을 소개하고 각 단락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불교사회복지의 내용을 정리했다. 〈자원봉사, 삶의 보람〉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불자 및 사찰·신행단체들의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의 의미와 역사, 각 사회복지분야별 자원봉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간병봉사의 이론과 실제〉는 간병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불자들이 교육에 필요한 예습·복습을 할 수 있는 교재로서 불교의 간병공덕사상과 기본적인 간호방법, 임종시 대처방안 등을 수록해 놓았고 〈장의예식봉사의 실제〉는 불교 장의예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 및 의식절차, 목탁의 사용방법, 재가의 제사방법, 예식시 필요한 독경 등을 수록해 놓았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전국의 불교복지시설 실무자(과장급 이상) 인적현황과 관련 공공기관, 관련학계 종사자 명단 등을 수록하는 〈불교사회복지 실무자 수첩〉을 이달말에, 〈불교사회복지 편람〉 증보판을 올해안에 각각 펴낼 예정이다. (02)734-0610~1 〈재〉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성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사찰의'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수 록 내 용 ■

제1부 발원문
1. 성도절 발원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새벽에 성취한 깨달음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4부 성불에의 길
1.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1)앙굴리말라, 2)용녀의 성불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법회안내 등을 주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크기/신국판(152mm×223m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법보시 특가/1권당 1,200원

《온라인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738-8682

현불뉴스

동국대 후원의밤 성료

동국대는 지난 12일 오후 7시 경주 현대호텔에서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기금마련을 위한 동국인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56억4천만원이 조성됐다. 동국대는 2년만에 2백60억원을 조성했다.

인도학생에 무료급식

세계기아 질병 아동구제기구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은 지난 1일부터 인도 둥게스리지역 수자타아카데미 학생 4백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지난 9월 한달간 인도와 네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타 아카데미를 급식지역으로 선정하고, 매일 점심시간에 빵 3조각 우유1병 계란 1개 사과 또는 바나나 2개를 무료급식하고 있다.

대불련 후원 · 사은의 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은 지난 1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대학생포교의 전기마련과 대불련 혁신을 위한 후원과 사은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대불련은 한국불교의 미래로 성장하기 위한 '21세기 대불련 혁신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한편 서돈각 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故 이한상거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자선스님(백양사 주지)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부산불청 회장 김건국씨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상대)는 12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제 21대 회장에 김건국씨가 선출됐다.

안동 용수사 대웅전 낙성

대한불교 조계종 안동 용수사(주지 신행)는 지난 9일 대웅전 낙성식 및 괘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도사 부방장 청하스님 권정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천2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기협 25일 정기총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오는 25일 오후7시 불교교육연구원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이 만든 불교용품 판로없다"

전시장소 못 빌리고 불자 외면 '이중苦'
종단복지재단 수용자 1천여명 생계위기

불자장애인들이 만든 불교용품이 판로가 없어 사장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상설전시장 및 상설판매장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자장애인들이 만든 각종 수공예 작품들은 주로 연말연시에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 등을 통해 겨우 판로를 열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장소대여 및 불자들의 무관심으로 전시회마저 무기한 연기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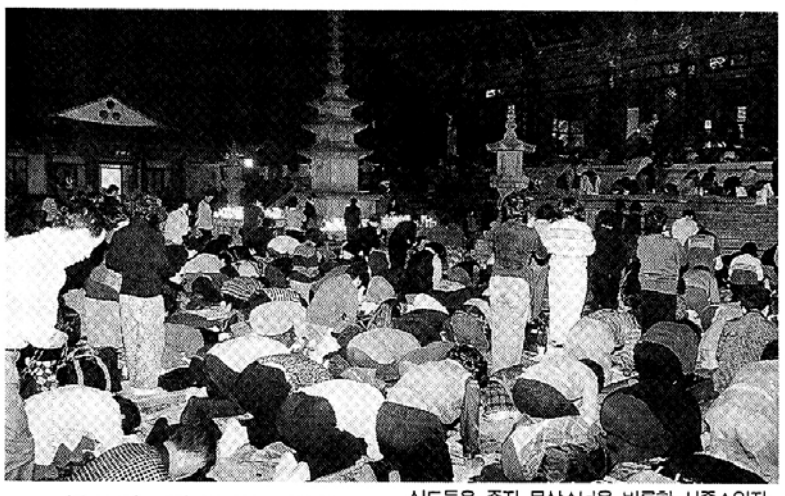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에 등록돼 있는 불교장애인복지시설은 천마재활원 주몽재활원 한마음장애인모임 연화복지원 치자마을 성우원 등 6곳. 이들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용된 불자장애인은 1천여명에 이른다.

1천여명의 장애인 중 2~3백여명은 재활목적은 물론 생계수단으로 수예 도자기 목공예 등의 각종 기술을 익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은 조계사앞 불교용품 상가나 매년 12월 또는 연초에 마련되는 전시회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선보이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동안 장애인작품전시라는 명맥을 근근이 이어온 한마음장애인 모임의 전시회가 전시장 대관료 및 내부사정으로 취소된 실정이어서 장애인들이 정성들여 만든 작품을 볼 수 없게 됐다.

전시회 이외에 불자장애인들이 만든 불교용품의 판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조계사앞에 위치한 상운중심이나 관음손 등 불교용품상가에서 불자장애인들이 만든 염주 향통 조각천가방 벽걸이 다기 등 일부품목이 판매돼 왔다. 하지만 중간마진의 과다한 지출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극히 미약한 형편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아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마련한 16평 규모의 곰두리장애인복지공관장을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자체적인 활로모색에 고심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회적인식부족과 교계의 미온적 태도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마음장애인모임 대표 채수선보살은 "장애자들이 만든 작품은 사활을 다해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성과 인욕의 지혜가 가득담긴 그들의 작품은 다량생산될 수 없는만큼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며 "장애인들의 재활 및 생계유지는 물론 한차원 높은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용품의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보살은 또 장애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노력이 곧 장애인포교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봉은사 3천배 철야정진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 9일 대웅전과 대웅전 앞마당에서 3천배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1천5백여명의 신도들은 주지 무상스님을 비롯한 사중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정진했다. 봉은사의 삼천배 철야정진은 지난 84년 영암스님 주지재임시 미륵불조성을 발원하며 시작되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초등교교사 종교편향 시정 촉구
조계종종회 교육부 감독촉구등 결의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초등학교 일선교사들의 편향적 종교교육 시정을 촉구하는등 대정부관련 결의문을 통해 불교계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정기종회에서 교육분과위원장 종광스님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매일 수업시간마다 기독교 예배를 강요하고있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실태를 설명했다.

이날 종회의원들은 "정부의 기독교중심적 동치체제에서 이러한 사태가 자행되고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정신을 준수하여 초종교적자세로 임할 것 △교육부의 감독철저와 문제교사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촉구했다.

이어 종회의원들은 부산 선암사 경내지 수용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회의원들은 "정부기관이 전통사찰 선암사 경내지를 강제로 수용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며 선암사경내지수용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종회의원들은 이번 회기 세비 전액을 진관스님 석방기금으로 기탁했다.

진관스님 석방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인권운동가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인 진관스님구속 진상규명과 석방을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단체의 활동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오는 22일 개최예정인 조계종 전국본말사 주지대회에서 진관스님구속 진상규명과 석방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인다.

이번 서명운동은 검찰의 진관스님 수사기간 만료로 지난 16일 진관스님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사회적 정서와 교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담불교문화재단 설립한다
도선사 · 문도 기금 10억 마련…포교 · 장학사업등 전개

조계종 초대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하며 조계종단 재건과 정화불사, 불교중흥을 위한 교육 역경 포교의 현대화 기틀을 마련했던 청담스님(1902~1971)의 유업을 잇기 위한 청담불교문화재단이 설립된다.

도선사주지 동광스님은 지난 15일 도선사 참회원에서 열린 청담대종사 열반 25주기 추모대법회 및 제13대 주지 진산식에서 "불은에 보답하고 청담스님이 걸으신 길을 따르기 위해 청담불교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청담불교문화재단은 1차로 도선사와 문도들을 중심으로 10억원의 기금을 마련, △출판을 통한 포교 및 제반포교활동과 △청소년 대상의 각종 장학사업 및 불교문화수련회 △청담문도회 소속스님의 교육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기금을 계속 적립해 서울 근교에 포교원을 겸비한 복합문화관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청담불교문화재단 설립위원회(위원장 동광)는 20일 롯데호텔에서 재단설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체부에 재단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당세금부과 취소" 범어사 서명돌입

범어사(주지 성오)는 지난 9일 본말사 주지회의를 개최하고 54억여원의 세금은 부당하다며 부과취소요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무원과 협의해 전통사찰에 대한 토지관련세금이 전통사찰 유지와 보존을 위협한다며 세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직장 · 직능법회 대표
사찰 신도회장단

종단차원 연수 잇따라
포교 · 신행역량 점검 '정보제공'

직장 · 직능법회 대표자 및 전국사찰 신도회장단 연수가 잇따라 열린다. 두 연수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주최하는 것으로 종단차원에서 이같은 연수를 개최하기는 처음이다.

직장 · 직능법회 대표자연수가 12월 7, 8일 화성 신흥사 수련원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에는 직장 · 직능법회 대표자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포교하는 직장인'(정락스님 · 전포교원장) '미래사회와 불교'(박광서 · 서강대교수) 주제의 특강과 분임토의로 진행된다.

포교원은 또 사찰신도회장단 연수를 다음달 14, 15일 실시할 예정이다. 장소 및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포교원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중앙신도회 안내를 포함시켜 중앙신도회 결성과 관련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소비행태 급선무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OECD 가입과…' 공청회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 총지종 법장원장)는 지난 12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OECD가입과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제1회 소비자정책공청회를 개최했다.

차차석씨(등국대 불교학과 강사)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OECD가입과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현 재정경제원 서기관은 "OECD가입이 확실시되는 현상황에서 소비자정책규범의 준수가 필수적인만큼 소비자보호운동은 중요하다"며 "불교계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캠페인등을 벌여나가는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철변호사는 'OECD가입과 소비자법률제도 개선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소비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런면에서 소비자운동은 불교적 교리에 잘맞는 테마"라고 주장했다.

석굴암 균열 내달 종합검진
문화재전문가, 콘크리트 이중돔 제거 주장

안전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석굴암(국보 24호) 종합검진이 실시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내부 돔 표면의 균열 등 석굴암 안전문제와 관련 대한건축학회에 공문을 보내 정밀진단을 의뢰했다. 연구소는 건축학회와 공동으로 진단항목 등 구체적 논의를 거쳐 내달부터 검진에 착수, 6개월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황수영박사(전 동국대총장) 김효경교수(서울대 공대) 김동현 소장(문화재연구소) 신영훈씨 등 교계 및 문화재관계자들은 지난 8일 석굴암 내부를 둘러보고 석굴암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이중돔을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기계실의 소음진동이 장기적으로 석굴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데 공감하고 장비교체, 외부로의 기계실 이전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에밀레종에 유리관
낙서등 훼손방지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 14일 박물관 뜰 종각에 있는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이 풍화작용과 관광객들의 낙서로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강화유리관을 씌워 보호키로 했다. 박물관은 99년 완공할 신별관 전시실에 43평 규모의 종각을 세우고 신종을 특수강화유리관 속에 전시키로 했다.

승가대학생회 학장실 점거농성

중앙승가대학 학생회(회장 원철)는 지난 12일 학장실과 법인사무처 기획실 총무처를 점거하고 지난 6월 구교법회당시 약속한 6개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동국대 기원학사 반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 14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승가대 교직원측은 지난 12일 동국대 관계자와 만나 96년 10월30일로 계약만료된 기원학사를 올해말까지 반환조치토록 합의하고, 학인스님들과의 의견조율에 나섰다.

마음 용량에 따라 쓸 수 있다

중생은 중생이므로 빚이 있다면 남도 충전시킬 수 있고 자신도 언제 어느 때나 용량에 따라 충전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 (항마육운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떠도는 어린넋들을 위한

태아령 천도 백일기도 안내

태안지장(胎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태아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태아영가의 천도를 위한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태아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입니다.

범종각 복원불사와 태아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1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2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3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태아령 천도공양법)
4 염불신앙의 길잡이(정토신행집)
5 백일기도 자료집(부처님께 가는 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1996년 11월 25일 오전 10시(입재) ~1997년 2월 22일(회향)
▶ 동참회비 : 기도금(5만원) 영가 위패 1인당 (5천원)
▶ 온 라 인 : 조흥은행 332-06-008780(석현장)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전 화 : (0694)52-1755 · 팩스(0694)53-0009



1박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불자의 정토신앙과 임종공부를 위해 "죽기 위한 가르침"이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1박2일의 단기수련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업을 맑히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대원사 주말 수련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매주 토요일 5시~일요일 2시 (10명 이상 단체 환영)
▷ 수련내용 : 정토수행법, 염불명상법, 선체조, 자비관, 관정기도, 육근참회, 향공(香功)등
▷ 수련지도 : 현장스님
▷ 회비없음
▷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사평종점)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군내버스)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주지 석 현 장 합장

건강백세 ㉚

위(胃) ③

포식등 무절제한 식생활 위 손상
식후 가벼운 운동 소화·전신 활력



최근 바빠진 생활여건으로 인해 끼니를 거른다든지 한두 끼를 포식(飽食)하는 무절제한 식생활 태도가 늘어나게 되어 소화계 특히 위질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꼭 하루 세끼를 먹어야만 된다는 원칙을 못 지키더라도(최근에는 '점심'과 '석식'만의 1일 2식이 보편화 되고있다) 나름대로의 일정한 식사시간의 리듬과 균형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것만은 확실하다. 물론 위궤양을 일으키는 특수한 균이 최근 확인되어 근본치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위산의 제거 내지는 중화와 신경을 편하게 해주는 약제의 겸복으로 위장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옛부터 식후에는 반드시 몇 보씩 걸으라고 강조했다. 오죽하면 '밥술가락 놓고서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까지 겁을 주었을까. 물론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막자는 뜻도 있겠으나 식곤증을 털어버리고 적당히 하는 운동은 소화만이 아니라 전신에 활력을 주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겠다.

한의학에서는 위를 '수곡(水穀)의 창고'라고 표현했다. 모든 음식이 한데 모여진다는 의미로 부여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중 기본영양을 조달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위기능을 감조하여 참고에 비유함은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적절한 식사후에 오는 만복감은 인체의 정서와도 깊이 연관된다. 모든 예의와 염치와 도덕이 먹는것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눈치밥 먹는 아이의 성격이 비뚤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들은 기본적인 식생활이 해결 되어야만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극명한 표현들이라고 본다. 눈부신 문명의 발전은 우리들에게서 가장 행복하게 확보 되어야할 편안한 식사의 기쁨을 앗아갈 정도로 분주하고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나날로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농업혁명으로 이루어낸 풍요로운 음식물들을 앞에 놓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인공적 기아(饑餓)'를 강요당하는 위장질환을 양산해 놓았다. 적절한 양의 음식을 알맞은 온도와 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인간회복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아들 부처님 ①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파출소서 옷 도둑질한 아들 데려온 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
스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아침에 별일 없이 등교했던 승호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라일락이 한창 향기를 내뿜는 봄날이었다. 중학교 2학년인 승호는 라일락 향기가 좋다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라일락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했었다.

그날 아이의 늦은 귀가에 대해 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저 친구 누구의 집에서 놀다왔다길래 미리 전화를 해 주지 않은 것을 따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내가 무심했던 것은 아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중상위권의 성적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여서 공부하라는 잔소리로 아이를 피곤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저 얌전한 나의 아들이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편도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고 나는 단출한 가정을 꾸리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우리집의 행복을 누가 시기해서 아들 승호를 그렇게 나쁜 길로 끌고 간 것인가.

승호의 귀가는 그후로 자주 늦어졌고 녀석은 그때마다 미리 전화하는 법도 없었다. 늦게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공부했어요" 아니면 "친구들과 놀다보니 늦었어요"라며 잘못을 빌어 왔다. 한번이 두번되고 두번이 네번되는 가속을 낳았다. 나는 남편에게 "승호가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 같으니 당신이 조용히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 걱정할것 없다며 "녀석은 날 닮았어. 나도 그만한 때는 늦게도 다니고 친구들이 전부이기도 했다구. 열려마. 우리의 아들인데 무슨 일이야 있을라구"라고 말했다.

여름방학이 될때까지 나는 아들을 지켜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켜볼 것도 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녀석이 어느날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태산같이 걱정을 하는 우리 부부에게 열통네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던 것이다.

"아니 이녀석이…"

"여보 내가 뭐랬어요. 애가 나쁜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파출소로 어떻게 달려 갔는지 모르게 가보니 녀석이 두명의 친구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녀석들은 아파트 단지 옆 동네 의류점에서 옷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다는 얘길 들었다. 나는 기절할 뻔 했다. 아니 기절을 할 수도 없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제가 원하는대로 거의 모든걸 사주었는데 뭐가 모자라 도둑질인가 말이다.

그날밤 남편은 옷가게 주인에게 빌빌 욕을 들어야 했다. 다른 두 아이의 아버지는 아예 파출소로 나오지도 않고 어머니들만 나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관국에 남편이 대표로 망신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간신히 합의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은 몽둥이를 찾아 들었고 승호는 하얗게 질려서 잘못을 빌었다. 나도 '이 녀석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의 기세와 몽둥이는 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나와 아들이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야 남편의 노여움을 가라 앉힐 수 있었다. 녀석을 방으로 보내고 "아빠가 되어가지고 몽둥이 드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느냐"고 따졌다. "집에서 애도 제대로 못키운 주제에 왠 시비를 거는거야. 그럼 저런 못되먹은 놈을 칭찬이라도 하라는 거야"라며 남편은 다시 언성을 높혔고 이번엔 부부싸움으로 집안이 뒤집혔다.

승호는 우리가 싸우는 걸 알고 다시 와서 모든게 제 잘못이라며 다시 용서를 빌었고 그때야 흥분이 가라 앉았다. 밤 2시였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는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흥분된 상태에서 생각이 정리될리가 없었다. 마냥 속상하고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아, 나도 저 시절을 겪었건만 왜 내 마음대로 아이가 커 주기만을 기대 하는가.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빨리 크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들이 당할 수 없다더니 승호도 분명한 요즘의 아이구나.' 이런 저런 생각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 올랐다. 내가 다니는 절의 학생회와 청년회를 맡아 지도하시는 그 표정 밝은 스님이 떠올랐다.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아직 젊으신 스님은 청소년 포교를 잘하는 편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법 성 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Pray, ask also other Samanas and Brahmanas far and wide, whether there is found in this world anything greater than truth, self-restraint, liberality, and forbearance.

만일 이 세상에 성실과 자제와 보시와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물어보라.

♦ Alavaka said; Why should I now ask Samanas and Brahmanas far and wide? I now know what is my future good.

야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널리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내세에 이익되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 For my good Buddha came to live at Alavi; now I know where a gift will bear great fruit.

아, 깨달으신 분께서 알라비에 살러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를 하면 어째서 위대한 과보가 얻어지는가를 알았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㊷

♦ I will wander about from village to village, from town to town, worshipping the perfectly enlightened and the perfection of the Dhamma.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으신 분과 진리의 뛰어남에 예배드리면서.

Vigayasutta
Vigaya(빠알리어) 승복, 정복 극복(Vijaya의 로마자음역)

♦ I either wolking or standing, sitting or lying, any one contracts or streches his body, this is the matoin of the body.

걷거나 서며, 혹은 앉고 눕거나 몸을 구부리고 또는 편다. 이것이 신체의 등작이다.

*restraint (n) 억제, 속박 (self-restraint 자제)
*liberality (n) 보시, 주는 것, 관대함
*forbearance (n) 인내, 관용
*bear (v) 가지오다, 낳다
*contract (v) (근육을)구부리다, 수축하다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금각사 ③
미시마 유키오 作

"하숙집 처녀의 존재는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가시와기는 인생에 도달하는 어두운 통로를 가르쳐 준 친구였다. 그것은 얼핏 보면 파멸로 내닫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뜻하지 않은 술수로써 비열함을 그대로 용기로 바꾸고 우리들이 악덕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순수한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일종의 연금술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가 하숙집 처녀를 소개시켜줬다. 그녀가 어떻게 나와 교제할 마음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처음 나는 눈앞의 처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진하고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마침내 손을 여자의 옷자락 속으로 넣었다.

그때 금각사가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지향하는 인생의 사이를 가로막고 나를 둘러싸는 세계의 구석구석까지도 묻어 버렸다. 때로는 그트록 나를 소외시키고 나의 바깥에 우뚝 솟아 있는 것 같았던 금각사가 지금은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그 내부에 나의 위치를 하락하고 있었다.

하숙집 처녀의 존재는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한쪽 손가락으로 영원을 만지며, 다른쪽 손가락으로 인생을 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름다움의 영원한 존재가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생을 해치는 것은 바로 이때인 것이다. 생이 우리들에게 살짝 엿보게 하는 순간적인 아름다움은 이러한 독(毒) 앞에서도 잠시도 지탱하지 못한다. 그것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멸하고, 생 그자체까지도 멸망의 희뿌연한 빛 아래 드러나고 마는 것이다. 하숙집 처녀는 나의 갑작스러운 위축에 모멸스런 눈총을 쏘면서 몸을 일으켰다. 금각사가 보고싶었다.

그날 밤 쯔루가와가 죽었다는 전보문을 받았다. 전보문에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씌여 있었다. 나는 쯔루가와의 시체도 못보고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해서 어떻게 쯔루가와의 죽음을 나의 마음속에 확인시켜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나는 그의 돌연한 죽음은 순순한 혈종을 가진 동물의 생명이 저항력이 약한 것 처럼 쯔루가와는 생의 순수한 성분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방지할 도리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림 · 심민섭

금각사가 더욱 절실하게 보고싶었다.

삼일 후 가시와기가 쯔루가와의 편지와 유물을 전해주었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있었다.

'나는 음울한 성격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타고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을 읽고서야 나는 지금까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의혹에 눈떴다.

나는 그때서야 불현 듯 깨닫고 "어쩌면, 자살이었어"라고 중얼거렸다. 가시와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일이 지나 나는 두 번 다시 '오타키'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대학을 등지고 금각사를 향했다. 할 일이 다 끝났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1 불교TV 개국특집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산림과 행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동화사 통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2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영상포엠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이. 절제된 카메라앵글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3 불기2538년 신년영상에세이
산중편지
속세의 방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불도(佛道)를 구하는 이땅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네분 스님의 신년에세이가 눈덮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4 불기2540년 설맞이특집
적멸보궁을 찾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교조(敎祖)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정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5 불교TV 개국특집
산사의 향음 · 만등만화공양법회
속세의 탐·진·치에서 벗어나 고고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청량제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만등만화공양법회는 육법공양의식 중계방송을 녹화한 것이다.

VHS -5개 1SET/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 영축산 통도사 금강계단 석종부도

btn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02)3272-0781~5/706-3502~5